

승학캠퍼스

☎ 604-714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Tel 051)200-7000, 6114
 Fax 051)201-5430

구덕캠퍼스

☎ 602-714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32
 Tel 051)200-7000, 6114
 Fax 051)248-6015

부민캠퍼스

☎ 602-760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
 Tel 051)200-7000, 6114
 Fax 051)240-8475

*주소 변경 및 신규 구독 신청은 fund@donga.ac.kr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www.donga.ac.kr

2013
Newsletter

vol. 103

동아는 지금

동결도(東關圖)

조선 1828-1830년 | 국보 제249호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소장



Pride in Dong-A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창의성과 유연성을 배양하는 대학,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대학, 지역 사회를 넘어 세계인이 원하는 대학,

그리고 글로벌 일류 대학을 향해 나아가는 대학!

이것이 동아인의 자부심이며, 긍지입니다.

세계로, 미래로! Pride in Dong-A

CONTENTS

Power of Dong-A

- 04 동아 Hot issue (1)
동아인의 자부심으로 동아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지향적 대학 학제개편
동아대의 얼굴, 캠퍼스가 특성화로 달라진다
- 10 동아 Hot issue (2)
동아, 청춘들의 꿈을 위한 마중물이 되다

Road of Dong-A

- 14 아름다운 동아인을 만나다 – 석당 정재환 박사
석당이 남긴 유산, 그 흔적을 따라 걷다
- 16 동아인의 숨과 결 (1) – 독일 본 대학 박희석 교수
도전하지 않는 자에게 실패할 수 있는 기회도 없다
- 18 동아인의 숨과 결 (2) – 문우당 서점 조준형 대표
반세기의 문우당서점, 100년을 기대하며 Restart!
- 20 새로운 미래를 열다 – 동아대 경영학과 이익선 교수
정답 없는 인생, '꿈 꾸는 기술'이 필요할 때

Innovation of Dong-A

- 22 Dong-A Innovation
산학협력 성과
- 24 Dong-A Global Network
동아대학교 병원 소식
- 26 Connect to the World
나눔과 공동체 의식, 동래읍성의 문화적 잠재성을 깨우다

Dream of Dong-A

- 28 Zoom in! 캠퍼스 라이프
'책' 대신 '사람'을 빌려드립니다 Living Library in Dong-A
- 30 꿈꾸는 동아인, 도전하는 동아인
– 동아대 국제관광학과 김정철 학생
극한 마라톤의 꽃, '아타카마'에서의 일주일
- 32 승리를 향해 달리다
최강의 역사(力士), 승리의 역사(歷史)를 써내려가다
– 씨름부 최성환 · 김성용 선수 그리고 송미현 감독
멕시코에서 세계 최강을 외치다!
– 태권도부 김태훈 · 김휘량 선수

Energetic of Dong-A

- 36 Dong-A Network
News Room
- 42 Donation Interview
동아인을 위한 기부스토리
- 46 Dong-A Honors
2013학년도 장학금 수여식
- 47 Dong-A 후원의 집
후원의 집 안내
- 48 Donation List
후원의 집 / 발전기금 납부자 명단
- 50 Donation Information
발전기금 납부방법

동아대학교 소식지 동아는지금

2013년 11월(통권 제103호)

발행일 2013년 11월

발행인 권오창

발행처 동아대학교 대외협력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하단동) T. 051)200-6042~3 F. 051)200-6015
www.donga.ac.kr

디자인 DAEHOON COMMUNICATION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12 2F T. 051)898-0330 F. 051)894-0016

★ 권오창 총장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

동아인의 자부심으로 동아의 미래를 그려나간다

새로이 시작하는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으로
동아의 발전을 위해 심 없이 달려온 권오창 총장이
지난 8월 1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 동안 동아대는 지역 사립 대학교의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도
빠르게 변화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오창 총장을 만나, 1년 동안의 변화에 대해 들어봤다.

🗨️ **지난 8월 취임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소감이 어떤지요?**

동아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새로이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달려왔습니다. 지난 48년 동안 학생부터 부총장, 법인이사를 거치며 '나는 동아인이다'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우리 동아와 함께 해왔기에 준비했던 모교 발전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난 1년을 보냈습니다. 저를 믿고 본연의 자리에서 묵묵히 대학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18만 동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 **학력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로 대학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아대의 발전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학력인구 감소와 정부 정책 등 대학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로 모든 대학들이 많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아대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다진다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학발전기획추진단을 발족해 학생과 학사·학제, 행정, 재정, 교수역량, 캠퍼스 조성, 국제화 등 7개 분과로 나눠 70개 단·중·장기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며 대학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학제개편은 융합 및 학제적 결합을 통해 대학을 특성화 시키고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학과로 만드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학제개편 내용 7페이지 참조>

이를 위해서 전임교원을 계속 확충하고 교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수트랙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 교수업적 평가 시 '교육 및 연구의 질'과 같은 정성적 평가 항목을 개발하는 등 우수 교원 확보와 강의 및 연구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교원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발전의 근간이 되는 캠퍼스도 재편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마스터플랜을 세워 2018년까지 캠퍼스를 정비하고 3개 캠퍼스의 효율과 시너지를 극대화해 캠퍼스별 특성화를 완성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캠퍼스가 특성화로 달라진다 8페이지 참조>

☞ **최근 대학들이 취업률로 평가 받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타계책이 있는지요.**

지난해 삼성중공업과 성우하이텍에 이어 최근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등 동남권 대표 기업을 찾아 우리 학생들의 우수성을 알렸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각종 대학 평가의 주요 지표가 되고 있는 취업률은 대학에서 무시하지 못할 부분이 되었고, 학생들이 좋은 직장에서 근무하도록 지원하는것 역시 대학의 역할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은 이미 타 대학이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우수한 취업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5월에 동아일보가 보도한 대학 취업지원 역량 평가에서 △금융플랜 지원 1위 △취업 본인 적합정보 2위 △학생조직활동 3위 △비정규교육과정 3위 등 가장 많은 항목이 Top 3에 오르면서 취업지원 평가 상위 10개 대학에 선정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12학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취업역량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취업률이 하락하는 추세 속에서 우리대학은 지난해보다 취업률이 5%이상 상승했고, 절대적인 취업자 수가 부산지역 1위, 전국대학 10위에 오를 만큼 우수한 역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은 취업의 새로운 키워드를 ‘창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아대는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부·울·경지역 유일의 창업신도대학입니다. 학내의 창업교육센터와 창업보육센터가 학생들의 도전정신과 기업가정신을 기르고, 변뜩이는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도록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창업기업들이 사업자 등록을 내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앞으로가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신다면?**

2015학년도부터 시행할 학제개편이 마무리 되면 2016년도부터 시행할 2차 학제개편이 이루어지고 구덕캠퍼스에 있는 예술대학이 승학캠퍼스로 이전 되는 등 동아는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 발전을 이어갈 것입니다.

동아대학교는 오랜 역사 속에서 큰 조직으로 성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부딪힐 위기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학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해야 합니다. 제 임기 동안 정제되지 않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할 것이며 구성원 모두가 주인의식 속에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대학을 만들겠습니다.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지향적 대학 학제 개편

우리 대학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대학 및 학과를 발굴해 육성하고, 인성·능력·도전정신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제개편을 단행한다. 2015학년도부터 적용될 이번 학제개편은 단순 물리적 결합이 아닌 화학적 결합으로 새로운 교과목 편성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융합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글로벌비즈니스대학, 건강과학대학 신설

국제 감각에 비즈니스 역량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제학부를 글로벌비즈니스대학으로 확대 개편한다. 비즈니스와 국제감각, 어학, 지역이해 등의 융합 교과과정을 통해 실무형 국제 비즈니스 인력을 육성하게 되며, 단일 학과로 ‘글로벌비즈니스학과’를 신설해 18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더불어 건강과학 관련 분야의 종합적인 교육기반을 조성해 식품영양과 보건, 의료 등 유망 미래산업으로 손꼽히는 헬스케어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현 자연과학대학의 식품영양학과와 생명자원과학대학의 의약생명공학과를 건강과학대학으로 이전하고 ‘건강관리학과’를 신설한다.

융합형 인재 양성과 특성화를 위한 대학 및 학과 개편

지난해 건축·디자인·패션대학을 설립한 것에 이어 융합형 디자인 인력 육성을 위해 공과대학 소속의 ‘도시계획’과 ‘조경’ 분야를 포함한 2단계 확대 개편을 실시한다. 신설되는 디자인환경대학은 ‘도시환경계열(도시계획/조경/건축)’과 ‘생활디자인계열(산업디자인/패션디자인)’을 아우르는 융복합 대학이다.

예술체육대학은 기존 예술대학과 스포츠과학대학이 하나의 대학으로 통합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커리큘럼을 마련한다. 예술체육대학은 유사교과과정을 통합해 △미술학과·공예학과·섬유미술학과는 ‘미술학과’로 △음악학과, 실용음악학과는 ‘음악학과’로 △체육학과, 스포츠지도학과, 생활체육학과는 ‘체육학과’로 △경찰경찰학과, 태권도학과는 ‘태권도경찰학과’로 변경한다.

대학 특성화와 학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편도 진행된다. 인문과학대학은 국어국문학과와 문예창작학과를 화학적으로 통합해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한국어문학과’로 탈바꿈 한다. 중어중문학과는 실용 중국어 능력 배양을 위한 ‘중국어학과’로 개편한다.

생명자원과학대학은 연구 특성화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유전공학과와 분자생명공학과를 ‘분자유전공학과’로 통합한다. 또한 첨단 농업생산과 바이오에너지 특성화를 위해 생명자원과학대학에 ‘생명자원산업학과’를 신설하고, 동남권 조선산업 성장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공과대학에 ‘조선해양플랜트공학과’를 신설한다.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개편

글로벌비즈니스대학 신설
글로벌비즈니스학과 신설

건강과학대학 신설
건강관리학과 신설 + 식품영양학과(자연과학대학),
의약생명공학과(생명자원과학대학)

디자인환경대학 신설
건축·패션·디자인대학 + 도시계획학과·조경학과(공과대학)

예술체육대학 신설
예술대학 + 스포츠과학대학

특성화를 통한 학과 경쟁력 강화

생명자원산업학과
첨단 농업생산 + 바이오에너지연구

조선해양플랜트공학과 신설
동남권 조선산업 전문 인력 양성

분자유전공학과
유전공학과 + 분자생명공학과

중국어학과
중어중문학과 + 실용 중국어능력

한국어문학과
국어국문학과 + 문예창작과

동아대의 얼굴, 캠퍼스가 특성화로 달라진다

1946년 동아대학교가 태동한 구덕캠퍼스와 1979년 공과대학을 이전하면서 시작된 승학캠퍼스는 대학의 오랜 역사를 함께 해오며 수많은 인재를 배출한 요람의 역할을 해왔다. 특히 그리스 양식을 가미한 석당기념관은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제2학생회관은 꼭대기가 돛형태인 특이한 모습으로 대학의 위상만큼이나 높은 건축수준을 자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우리 대학이 최근 부민캠퍼스 조성을 완료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대학이 발전하면서 확장되어 온 캠퍼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캠퍼스별 특성화를 추진하면서 확실한 대학 발전의 발판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한 학제개편으로 학문의 경계가 구분의 지점이 아닌 새로운 학문의 시작점이 된 것에 맞춰 특성화 캠퍼스로 변모될 동아대학교 캠퍼스를 미리 만나보자.



“승학캠퍼스”
대학을 대표하는
연구·산학협력 캠퍼스



대학본부가 위치한 승학캠퍼스는 인문과학과 공학, 예체능, 자연 및 생명자원과학 관련 학과를 배치해 연구 및 교육기능을 강화한 ‘연구중심 공원형 캠퍼스’로 바뀐다. 학제개편에 따라 구덕캠퍼스의 예술대학이 이전하면서 공대 4호관 우측에 예술대학과 신축 운동장이 2015년 1월까지만 들어진다. 또한 600명 수용 규모의 기숙사가 2015년에 문을 열게 되고, 스포츠과학대학을 비롯한 노후 건물의 리모델링이 진행된다.

중장기 계획으로는 지금의 대운동장을 광장으로 조성해 지하에 주차장과 학생회관 시설로 구성된 ‘Student Plaza’가 들어서게 되는 등 2018년까지 중심 캠퍼스로서의 역량을 강화한다.



“부민캠퍼스”
국제교류 중심의
도심·문화형 캠퍼스



부민캠퍼스는 국제관 내에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다우홀과 세미나 시설 등이 갖춰져 있고 부산의 중심에 위치해 국제교류 중심의 캠퍼스로 손색이 없다. 또한 국제학과 법학, 경영학, 사회학의 특색을 고려해 국제교류중심 기능을 확대한다.

특히 2014년 8월 국제교류원과 기숙사, 게스트룸 등이 들어서게 될 ‘국제교류관’(가칭/사진)이 신축되면, 우리 대학의 국제화 지표 상승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임시정부청사를 리모델링하여 건물자체가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석당박물관의 다양한 특별전과 예술품 전시 등으로 지역 문화를 선도하는 캠퍼스가 될 것이다.



캠퍼스 내에 동아대학교 병원과 인근의 대신공원이 위치해 있는 구덕캠퍼스는 대학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메디컬 캠퍼스로 변모한다. 구덕캠퍼스 중앙정원 지하공간을 개발해 복합편의시설과 교육시설을 확보하고 지금의 석당홀과 음악관, 미술관을 잇는 자리에 교육 연구 시설 등을 신축한다. 또한 건강과학대학을 이전(시기 미정)하여 기존의 의과대학과 함께 메디컬 중심 캠퍼스로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구덕캠퍼스”
대학의 전통을 간직한
메디컬 중심의 휴식·치유형 캠퍼스

★ 성공적인 창업을 도와드립니다! 동아대 창업지원단

동아, 청춘들의 꿈을 위한 마중물이 되다

창업을 하려면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 창의성 등을 필수로 갖춰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더라도 창업이 가능한 시대가 왔다. 바로 창업선도대학의 창업지원프로그램 때문이다.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된 우리 대학은 지난 2011년부터 창업사업화지원사업과 창업아카데미, 창업동아리를 통해 23개의 대학생 기업을 탄생시켰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창업에 대해 문외한이었던 학생들이 각 기업을 대표하는 CEO가 되었다. 지금부터 동아대의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들과 젊은 CEO들이 창업에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비결들을 살펴보자.

글 | 정민석 대외협력처 홍보팀 jungms@dau.ac.kr



01



02



03



04

동아대, 부·울·경 지역 유일한 창업선도대학

지난 3월 우리 대학은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에서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됐다. 전국에서 18개의 창업선도대학이 선정됐으며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동아대가 유일하다. 우리 대학은 현재 정부로부터 약 17억 원을 지원받아 우수한 인프라(공간, 장비, 인력 등) 마련 및 전담교육과 멘토링,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교육비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창업강좌와 창업동아리, 창업아카데미 등을 열어 학생들이 창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창업경진대회를 열어 창업 붐을 조성하고 있다. 더불어 초·중·고 학생 중 창업유망주를 발굴·육성해 나가는 등 사회적 창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창업의 모든 것을 도와 드립니다

전국 각지의 창업보육센터는 입주 기업들에게 임대 보증금과 설비 이용료 등을 저렴하게 제공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 그러나 입주기업을 아무리 살펴봐도 대학생 벤처 기업은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에 동아대 창업지원단은 대학생 예비 창업자 발굴을 위해 '창업동아리 개설 → 창업 실행 → 성장 촉진'의 세 가지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묶어 제공하고 있다.

먼저, 창업동아리를 결성하면 제조 및 지식서비스 분야로 이루어진 28개의 과제를 부여받는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에게는 최대 5,000만 원의 창업자금이 지원되며 이 자금은 오로지 창업 실행만을 조건으로 하고 담보 또는 보증이 없는 것이 장점이다. 창업에 성공한 기업은 창업보육센터로 옮겨져 본격적인 기업 활동에 들어가게 되며 보육기간 동안 제공되는 법률 및 회계 분야의 컨설팅을 통해 조직을 안정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1년의 보육과정을 거쳐 졸업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학교와 연계된 49개 기업과 업무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취업? 창업? 선택의 갈림길에 선 그들

“창업을 어렵고 힘든 것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창업선도 대학에서는 초보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창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니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었으면 합니다” 동아대 창업지원단에서 학생들에게 전한 말이다. 그렇다. 창업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시작을 두려워하는 학생이 많고, 용감하게 창업에 도전하더라도 여건상 다시 취업의 길로 들어서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힘든 일일수록 얻는 것도 많은 법. 창업 동아리로 시작해 당당히 벤처 기업 반열에 올라선 선배 기업을 만나고 그들이 전하는 생생한 창업 스토리를 들어 보자.

01 2013년 2학기 「여성과창업」 우수기업 탐방

02 2013년 청년창업 Play & Talk 아이디어 발표

03 2013년 제1차 창업초기기업 재직자교육 개최

(자율프로그램 DA-HRD)

04 창업지원단 창업 아카데미



창업지원단 창업사업화지원사업 3기 | 동아대 관광경영학과 4학년 김경문 · 김경덕 · 김다은 · 이현승

대한민국 제1호 디지털 유산 관리 기업, 로하

기회는 놓치면 후회하는 법

로하의 김경문 대표는 6개월 전만 해도 자신의 꿈인 교수가 되기 위해 미국 휴스턴대학교 석사과정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인의 부고를 받아 장례식장을 방문하게 되었고 유가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는 것을 보면서 문득 고인이 인터넷에 남긴 글과 사진들은 어떻게 관리될까라는 호기심이 생겼다. 그 길로 김 대표는 '디지털 유산'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팀을 꾸려 사업을 시작했다.

'디지털 유산'이란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할 영속적인 가치와 중요성을 지닌 디지털 정보이다. 예컨대 내가 올 여름 휴가를 다녀와 SNS에 업로드 한 사진은 물론, 자주 쓰는 폰 बैं킹 이용내역, 온라인 게임 아이템과 같은 사소한 것들까지 디지털 유산에 포함된다. 보안기업 맥아피(McAfee)의 조사를 보면 한 사람

당 3,000개의 디지털 자산을 가지고 있고, 이것의 가치는 약 3만7438달러(약 4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처럼 디지털 유산 사업은 경쟁력이 있음에도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블루오션이다. 7년간 준비했던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는 것은 김 대표에게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최초이자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기대와 열정이 있기에 창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고인(故人)들의 페이스북을 꿈꾸다

로하의 대표적인 콘텐츠인 디지털 49재(<http://www.roadtoheaven.co.kr>)는 고인의 사망일을 기점으로 49일 동안 운영되는 홈페이지다. 고인과 사전에 협의된 글과 사진, 음악 등을 홈페이지에 전시하여 고인을 추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며 장례식 장소 안내 및 부조를 위한 계좌번호 알리미 같은 실용적인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김 대표는 "친구와 지인의 소식이 궁금할 땐 페이스 북을 찾습니다"며, "저희는 고인의 페이스 북으로서 고인을 추모하고 그가 그리울 때면 언제든 지 접속해 섭섭한 마음을 달래 줄 수 있는 디지털 유산관리 기업이 될 것입니다" 고 전했다.

실패에 무뎌질수록 성공에는 가까워진다

로하는 최근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부산 경제진흥원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잇달아 선정되어 사업지원금 4,000만 원을 받을 정도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러나 11전 3승 9패라는 전적이 보여주듯이 로하는 성공보다 실패에 익숙한 기업이다. "9번 실패하더라도 회사가 문을 닫지는 않습니다. 실패에 연연하다 보면 될 일도 안 되더라고요"라는 김 대표의 말처럼, 로하는 결과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실패를 할 때마다 더 독하게 마음을 먹었다. 창업보육센터를 매일같이 방문하여 아이디어 회의를 했고 갖가지 피드백을 요구해 보육담당자를 괴롭혔으며, 사업계획서를 10번이나 수정하는 인고의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유산 상속과 관련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 또한 대기업이라는 새로운 경쟁자가 출현할지 모르는 오리무중의 시장이기에 로하가 넘어야 할 실패는 아직 많다. 그러나 실패에 대한 내성이 있는 그들이기에 다가올 로하의 미래는 밝다.



창업지원단 창업사업화지원사업 3기 | 동아대 일반대학원 서호정 · 윤영준, 경영학과 4학년 송인애

못난이 과일이 더 맛있다, 파머스페이스

누군가 해야 할 일기에 우리가 한다

2009년 농산물 유통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간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소비자가격의 44% 정도 된다고 한다. 매스컴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유통구조가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킨다고 하지만, 누구 하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다. 이에 파머스페이스는 못난이 농산물을 들고 소농가들 돕기에 나섰다. 못난이 농산물이란 외형이 변해 상품성은 낮으나 맛은 일반 농산물과 다를 바 없는 일명 B급 농산물을 말한다. 파머스페이스는 못난이 농산물을 전국 각지 소비자들에게 직접 배송하여 중간유통 단계를 생략하는 한편 농민들이 간과하기 쉬운 마케팅과 홍보를 대신 수행하면서 국내 소농가들의 판로개척을 돕고 있다.

진심을 담아서 판다

얼마 전 어떤 태국 손님이 파머스페이스의 오프라인 매장 '열매가 맛있다'를 방문했다. 고향의 망고 주스가 생각나서 주변 카페를 돌아다니는 중이라고 운을 댔 그는 가게를 나설 때 조그마한 쪽지를 남기고 갔다. "오늘 주문했던 망고 주스는 제가 어릴 적 좋아했던 것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그리운 맛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매가 맛있다'에서 제공하는 음료는 오로지 과일만을 사용하고 인공재료는 없으며 직접 착즙해서 만들어진다. 재료와 손이 많이 들어가고 주변 프랜차이즈 점포와 비교하면 마진이 적게 남는 방식이지만 이를 고수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즙을 내는 방식이 갈아서 마시는 것에 비해 약 8배 정도 영양소 섭취율이 높아 건강에 좋고, 신선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싶은 파머스페이스만의 철학과 부합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7가지 다채로운 색깔의 과일을 담은 네이처박스에겐 가격거품을 빼고, 하루에 섭취해야 할 필수 영양소를 듬뿍 담아 판매하면서 노화와 질병예방에 좋은 컬러 푸드 운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못난이 과일들, 세상의 중심에 서다

파머스페이스는 '못난이 농산물'을 자신들의 모습에 비유했다. 과거 취업과 학업에 좌절하여 자신을 못난이로 생각한 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못난이에서 견실한 기업의 주인이 된 그들은 이 시대의 청춘들에게 "할 수 있다"라는 소중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호정 대표는 창업을 준비 중인 후배들에게 이런 조언을 남겼다. "파머스페이스는 3명의 학생이 자본금 150만 원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창업을 시작하는 방법은 '그만 말하고 이제 행동하는 것'입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은 좋은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이 아이디어와 아이템 단계에서 그친다는 것입니다.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점 때문이죠. 하지만 가만히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지도 않고 누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주위에 있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창업이란 재미난 놀이를 시작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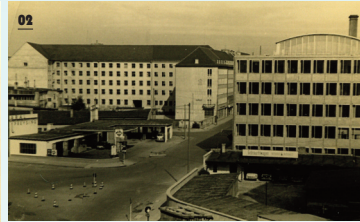
석당이 남긴 유산, 그 흔적을 따라 걷다

우리 대학은 제6대 법무차관을 지낸 고 석당(石堂) 정재환 박사가 설립한 학교법인 동아학숙을 모태로 개교했다. ‘홍익인간’이라는 건학 이념을 토대로 민족의 자주와 자립이라는 국가 백년대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지도자가 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대적 소명이라고 인식했던 석당 선생. 그가 선진국을 시찰하고 온 수기가 발간돼 화제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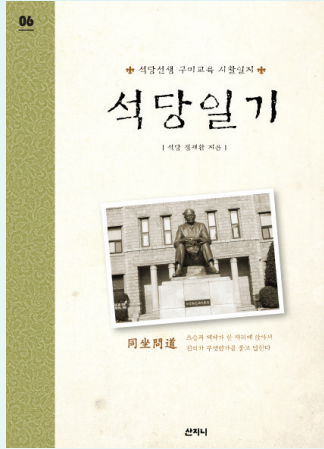
글 | 조해훈 다우미디어센터 massjo@dau.ac.kr



01 석당(堂先) 정재환 박사



02~05 1960년 석당선생 해외교육 파리시찰



06 『석당일기』 표지

‘선구자’는 어떤 의미일까? 본교 김영선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석당일기』 머리말에서 ‘어떤 일이나 사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앞선 사람’이며, ‘선구자라는 단어에는 실천적 행동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고 정의했다.

우리 대학교는 지난 10월 20일자로 245쪽 분량의 신국판 단행본으로 『석당일기』(산지니출판사)를 발간했다. 이에 앞서 본교는 지난해 11월 우리 대학 설립자인 고 석당 정재환(1906~1976) 선생이 1959년 미국과 유럽의 교육제도를 시찰하며 느낀 점을 기록한 노트를 『석당선생 구미교육시찰일지』(동아대 출판부)라는 제목으로 책을 펴냈다. 이번에 나온 『석당일기』는 『석당선생 구미교육시찰일지』 원본의 의도를 살리면서 한자어나 일본어, 개인방언 등을 지금 사용하는 표준어휘로 바꾸고, 문장과 단락의 선후 관계와 표현 등을 자연스럽게 고친 보급판이다. 석당학술원의 주관 하에 지난 6개월간 이 작업을 진행해온 김 교수에 따르면 “『석당일기』가 가진 진정한 가치는 교육에 대한 선생의 생각과 시대적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교육을 통해 선생이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을 일기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한마디로 선생이 생각했던 교육의 목적은 바로 한국의 ‘선진국’ 됨에 있었다”고 정리했다. 신태갑 석당학술원장과 이국환 문예창작학과 교수, 허정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김 교수의 이번 편찬 과정에 윤독과 토론을 ‘자신의 일’처럼 해주었다.

석당 선생과 인연을 맺었던 박관용 전 국회의원, 박필룡 전 동아학숙 이사장, 조무제 전 대법관의 인터뷰가 이 책 안에 별도의 박스기사로 실려 있다. 또 책은 선생의 미주 교육기관 시찰의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 선진교육의 체험이다. 1959년은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사조에 영향을 받아 신교육이 강조된 제1차 교육과정기이자 6·25전쟁 직후 나라가 대 혼란기에 빠져 있었던 시기로, 선생의 미주 방문은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내용을 직접 접하고 이를 학교 운영과정에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이다. 둘째, 학교의 세계화를 위한 노력이다. 선생이 방문한 유수 대학 총장과의 만남에서 친선교류를 중요한 안건으로 삼은 것은 국제화를 학교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21세기 우리나라 대학의 교류방식을 이미 50년 전에 시도했다는 의미이다. 셋째, 재정문제의 해결이다. 선생은 한미재단과 아시아재단, 록펠러재단 등을 방문해 재정지원 요청을 했으며, 실제로 아시아재단으로부터 적잖은 재정지원을 받았다. 또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국가와 민족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선생의 국가관·교육관·인재관도 읽을 수 있다.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선생에 대한 재평가 시도는 물론 우리 대학의 발전과 비전을 새롭게 제시할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교수는 “굳건한 국가관을 바탕으로

로 사회의 무질서와 삶의 피폐함이 극에 달한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이끌고 갈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에 헌신한 실천적 행위를 평가할 때 석당 선생은 고등교육의 선구자인 동시에 실천가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책과는 별도로 함정임 문예창작학과 교수가 당시 석당 선생이 시찰한 대학 등을 답사 취재해 내년 10월께 『대학교육 선각자 석당 선생을 따라가다-워싱턴에서 아테네까지』(가칭)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할 예정이다.



영은이 김영선 국어국문학과 교수

학 력	1982~1986년 동아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수료 1986~1988년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 수료 1989~1994년 동아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수료
논 저	〈국어 음절구조제약과 음운현상〉(2004), 한국문화사, 외 〈영어권 한국인 이민자의 한국어 음운 규칙 오류 분석 연구〉 외
활 동	- 우리말학회 회장 - 한국어문화교육학회 부회장 외 - 동아대학교 국어문화원장 - 동아대학교 언어교육원장



★ 120년간 잠들어 있던 ‘코레아의 신부’를 깨운 박희석 교수

도전하지 않는 자에게
실패할 수 있는 기회도 없다

글 | 박민정 대외협력처 홍보팀 pmj11111@dau.ac.kr

Question

반갑습니다. 교수님 최근에 ‘코레아의 신부’를 끝까지 추적해 발견하셨는데요, 발견 과정과 에피소드에 대해 이야기 해주십시오.

1880년부터 1945년까지 독일에서 활동한 한국인을 조사하기 위해 자료 수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한 고서에서 ‘코레아의 신부(Die Braut von Korea)’와 관련된 글을 보았고, 이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럽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19세기 말, 우리나라의 이름을 딴 발레가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발레 줄거리를 담은 그 소책자를 베를린 국립 도서관 음악관에서 찾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를 읽어 보니 제목 뿐만 아니라 내용 역시 한국을 배경으로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 이후 ‘코레아의 신부’와 관련된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고, 의상도안 한부와 작품에 관한 내용을 담은 논문 한 편을 찾았습니다. 이 논문을 통해 공연 내용과 당시의 반응 등을 알게 되었고, 이 발레를 세계에 또다시 소개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를 재공연하기 위해서는 악보가 필요했고 여기저기 발레 및 음악 전문점에 문의를 했지만 발레의 총약보는 찾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차 프랑크푸르트의 한 음악출판사에까지 연결이 됐고, 희망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총약보는 없지만 당시 발레의 중요 무곡을 뽑아 인쇄하여 판매한 것이 창고에 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좋으니 찾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출판사 담당자가 개별 무곡을 찾는 도중, 옆에 있던 다른 박스에서 손으로 쓰인 500쪽이 넘는 발레의 총약보(Partitur)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박스 안에서 잠자고 있던 신부를 깨운 순간이었습니다.

Question

독일에서의 생활은,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동아대에서 박사과정이 끝났던 시기인 1991년에 독일 뮌헨대학교 교환 학생 장학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박사 과



정을 수료한 후, 논문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1년 간 뮌헨에서 머물기로 했습니다. 애초에 독일에 오래 있을 생각은 아니었고 자료 수집을 위한 도독(渡獨)이었습니다. 도독은 1년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독일에서 생활하는 동안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바로 우리나라를 제대로 알고 싶다는 바람과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그동안의 제 삶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것이라 쉽지 않았고 오랜 기간 동안 고뇌와 고심을 거듭한 끝에 독일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가 1994년 봄이었고, 그 해 9월 뮌헨에서 베를린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 후 베를린자유대학에서 독어학 공부를 하다가 1998년 겨울 학기부터 베를린 훔볼트대학 한국학 석사와정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05년 겨울학기부터 튀링엔주의 에어푸르트(Erfurt)대학 동아시아 역사학과에서 박사공부를 시작했고, 2009년 한국 현대사 관련 논문 ‘한국 학생운동 시 무속의 이념적 기능적 역할연구’를 제출해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2009년부터는 베를린자유대학(Freie Universität Berlin) 한국학과 전임연구원으로서 개인 연구작업 외에도 필수과목인 ‘한국역사입문’과 ‘한국문화입문’ 강의를 했습니다. 약 3년 반 베를린자유대학에서의 활동을 마치고, 올해 4월부터 본대학(Friedrich-Wilhelms-Universität Bonn) 일본한국학과(Die Abteilung für

Japanologie und Koreanistik)의 한국학 교수로 재직하게 됐습니다.

Question

타국에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도 우리나라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셨습니다.

석사를 마친 이후, 독일어로 『혼란한 조용한 아침, 역사 철학적인 관점에서 본 한국사』라는 책을 집필했고, 공공장소에서 이미릭 씨에 관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이미릭의 삶과 문학을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독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다보면 한류로 인해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많은 독일인이 우리나라에 대해 더욱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입니다.

Question

마지막으로 동아인으로서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독일에서의 활동을 결정했을 때, 저로서는 그동안 쌓았던 한국에서의 삶을 모두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독일에서의 삶은 장래에 대한 어떤 보장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는 독일에 한국을 제대로 알고자 하는 꿈을 키우며 이를 쫓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스스로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됐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꿈을 가지고 이를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꿈을 정말 좋아하고 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후배 여러분도 어느 순간 ‘인동초’의 아름다움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코레아의 신부’는 내년 10월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정식 공연을 앞두고 있다. 독일 본 대학교에서 박희석 교수에 의해 발레 줄거리가 담긴 13쪽 분량의 소책자와 악기 연주를 위한 악보, 지휘 방법이 기록된 543쪽 분량의 총론이 발견됐다. 코레아의 신부는 1897년 5월 2일 오스트리아 빈 궁정오페라하우스(현 국립오페라하우스)에서 초연됐으며, 이례적으로 5년간 장기 공연된 인기 작품이다. 1895년 하인리히 리델이 극의 내용을 1897년 빈 궁정오페라하우스 악단장이었던 요제프 바이어가 작곡했다. 이 작품은 청일전쟁이 일어난 시기에 조선의 왕자가 조국을 위해 전쟁에 나가게 되면서, 그를 사랑한 연인 또한 목숨을 걸고 함께 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당시 무대에는 대형 아치 8개와 암벽 구조물 4개가 함께 설치됐고, 의상은 312벌이 투입된 대작이었다. 의상도안에는 흰 바지저고리와 곱방대를 물고 있는 ‘한국인 할아버지’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 문우당서점 조준형(금속공학과, 83학번) 대표

반세기의 문우당서점, 100년을 기대하며 Restart!

1955년 문을 열고 명실상부한
부산의 대표서점으로
이름을 날린 문우당서점.
하지만 오랜 역사도 경기불황과
전국적인 서점시장 침체 앞에선 약해졌다.
2010년 폐업을 결정하고
정리가 한창이던 때,
그곳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이
문우당서점의 장점을 살려
전문서적을 취급하는 작은 서점으로
명맥을 잇겠다고 나섰다.
그는 바로 본교 83학번 조준형 동문.
언젠가 서점을 운영하고 싶었던
그의 소박한 꿈이 문우당서점을
지켜내겠다는 마음과 더해지며 이뤄졌다.
지역서점의 중심인 문우당서점을 지켜내고,
동아의 자랑스런 이름으로 기억될
조준형 동문을 만나러
반세기 역사가 살아있는 그곳을 찾았다.

운명처럼 다가온 문우당서점과의 인연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했는데 학교 생활이 영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일하던 곳이 부도가 나면서 월급도 못 받고 그만두게 되었죠.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했는데 그때 문우당서점에서 직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봤어요. 일주일 만에 새 직장으로 출근했죠” 고교시절 도서관 활동을 했던터라 원래 책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그는 당장의 꿈은 아니었지만 ‘언젠가는 서점에서 꼭 일해보고 싶다’는 꿈도 있었다. 그렇게 1988년 11월부터 문우당서점에서 근무했다. 하지만 IMF를 겪으며 힘든 시기를 보내야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통해 부산을 대표하는 서점으로 자리잡았지만 폐업의 위기는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해양 전문서적과 다양한 지도를 보유하고 있는 문우당서점의 특성은 폐업으로 문을 닫기엔 너무나도 아까운 재산들이었다. “서점운영은 사양산업이었기에 많이 힘들었어요. 어느 정도 폐업을 예견하고 있기도 했고요. 하지만 막상 문을 닫으려고 하니 작잡했어요. 제 청춘을 이곳에 다 바쳤는걸요. 문우당의 특화된 부분만 가지고 작은 서점으로 계속 운영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전 대표님께 말씀드리고 인수 받았어요. 서점을 운영하고 싶었던 막연한 소망이 드디어 현실이 된거죠. 규모는 이전에 비해 현저히 작아졌지만 보유하는 지도의 종류, 해양전문서적의 수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예요”

지역서점만이 할 수 있는 일,
지역서점이라서 할 수 있는 일

대형서점의 경우 베스트셀러를 최
대한 많이 파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조 대
표는 전문서적과 지도의 다양성을 확보하
는 데 주력했다. 삼고초려의 자세로 여러 출판
사에 문의해 다양한 종류의 지도를 주문제작
했다. 또한 부산출신 작가들의 작품, 부산지
역 출판사에서 출간하는 책들을 서점에 비치
해 '부산의 책들' 코너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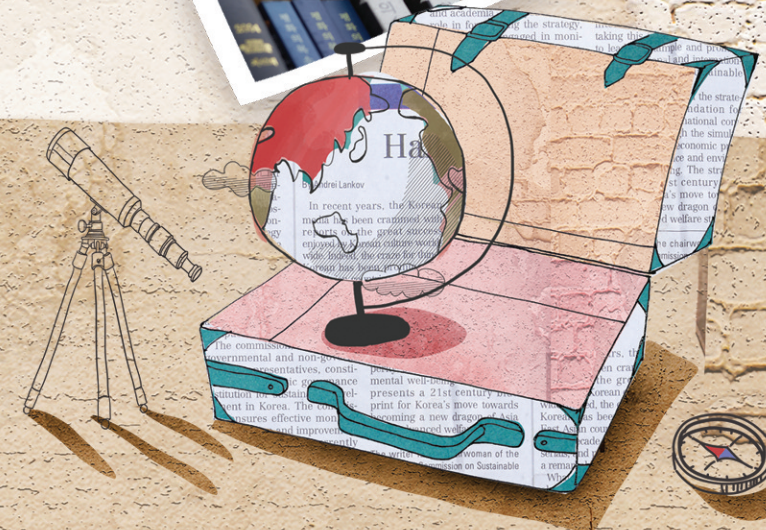
“부산지역 출판사나 지역작가들의
작품은 100권 중 5권만 팔아도 잘 되는 편이
예요. 그만큼 판매가 어렵단 뜻이죠. 하지만
책의 구매 여부는 손님이 선택하는 몫이기
때문에 그 선택마저 서점이 제한할 수는 없
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역할이 지역서점만
의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조 대표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해양전문서적과 지도
를 구입하기 위해 많은 고객이 서점을 찾았
다. 가끔은 대형서점에서도 문운당서점으로
재고 문의전화가 걸려온다고 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관련서적을 보유하고 있는 이곳
을 통해 지역서점이기에 가능한 일을 조 대
표가 훌륭하게 해내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반세기의 문우당서점,
사람과의 소통이
중심이 되는 곳이길 소망

“추억조차 문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
해요. 문우당서점과 함께 많은 추억을 쌓아

갈 수 있는 그런 서점을 만들고 싶고, 그게 제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단순히 책만 사고 가는 곳이 아니라 '사람과 대화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점에 없는 책들도 손님이 찾으면 그 책이 있을만한 다른 서점을 손수 찾아서 추천해주는 조 대표.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일이지에 그저 지나칠 수가 없었다. 이것 또한 사회 회원이자 재능기부의 일종이라고 그는 표현했다.

모교에서 이 글을 읽을 후배들에게
도 서점 주인다운 당부의 인사를 남겼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꼭 읽어보
길 권해요. 20대가 겪는 방향과 고통은 옵션
이 아니라 필수코스과 같아요. 방향해야 알
수 있고, 고민해야 성장할 수 있죠. 그러니깐
많은 경험을 해보는 청춘을 만들었으면 좋겠
어요” 부산지역의 자랑이자 추억이요, 살아
있는 역사가 되어가는 문우당서점. 반세기
시간을 책과 함께 해온 이곳이 언제까지나
부산을 대표하는 지역서점으로 남기를 바라
본다. 더불어 이처럼 가치 있는 곳을 지키는
이가 자랑스런 동아인이라는 사실에 모두가
 긍지를 가지기를 또한 바라본다.



★ ‘꿈’의 소중함 일깨워 준 경영학과 이익선 교수

정답 없는 인생, ‘꿈 꾸는 기술’이 필요할 때

글 | 정만석 대외협력처 홍보팀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공전의 히트를 치자, 청춘을 위로하는 책들이 홍수처럼 쏟아졌다. 하지만 위로만 있을 뿐 삶의 방향성을 명확히 집어주는 책은 드물었다. 이런 책들 속에서 이익선 교수가 펴낸 『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는 청춘들이 삶의 목적을 찾고, 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자 역할을 맡았다. 오랜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을 담은 책, 지금 우리는 ‘꿈꾸는 기술’을 배울 때다.

Question 반갑습니다.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Answer 안녕하세요, 이익선입니다. 저는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2011년 『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꿈을 찾는 기술을 알려주는 ‘비전 메이커스’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uestion 『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도서를 발간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요?

Answer 학생들이 종종 저를 찾아오면 묻는 말이 “교수님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였습니다. 꿈을 정하지 못해서 방황하고, 막연하게 불안해하고, 뭔가에 집중하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조언하는 것이 미안해서 꿈에 관한 책을 닦치는 대로 약 200권 정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자연스레 꿈꾸는 기술과 꿈을 만드는 사고방법론 몇 가지를 정의하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꿈 찾기 프로그램 Vision Makers(비전 메이커스)를 5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는 앞서

공부하고 경험했던 모든 내용을 담은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비롯하여 20대 청춘들을 위한 도서가 많이 출간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집필하신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요?

Answer 현재 청춘들을 향한 다양한 책들 대부분이 이들을 위로해주는 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책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위로는 받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꿈을 설계하는 사고 방법론을 제시하고 싶었으며, 학생들의 에피소드를 통해 현실적으로 이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Question 앞서 교수님께서 ‘비전 메이커스’라는 프로그램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Answer ‘비전 메이커스’는 2009년부터 매 학기 진행해온 8주 과정의 꿈 찾기 프로그램입니다. 동아대 부민캠퍼스에서 5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150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해 꿈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버킷리스트나 미래이력서를 작성해 친구들과 나누어 보면서, 꿈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누구의 관심도 강요도 없었던 프로그램이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9기 학생 40명이 꿈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Question 『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서적이 인기를 끈 이후 삶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요?

Answer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주 독자였던 대학생 이외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



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중고등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로부터 상담 요청을 받기도 했고 최근에는 진주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꿈꾸는 기술’에 관한 강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Question 그렇다면 초등학생과 같이 일찍부터 꿈꾸는 기술을 터득한다면 학생들에게 어떠한 점이 도움이 될까요?

Answer 초등학교에서 강의를 진행할 때면 학생과 함께 온 학부모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학부모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마음을 열어놓은 편한 분위기에서 말이죠. 부모님은 무척대고 “꿈이 뭐냐?”라고 물어볼 것이 아니라, 부모님부터 꿈꾸는 기술을 배워서 자녀들이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면 더 좋겠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는 기술을 접한다면 보다 넓은 생각을 할 수 있으며, 좀 더 진지하게 자신의 인생을 계획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점수에 맞춰서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꿈에 맞춰서 학과를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Question 책 내용을 보면 30년 뒤의 미래 스토리형 꿈을 만들고, 5년 단위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Answer 책 속에는 스토리형 꿈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양식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30년 후를 향한 구체적인 스토리형 꿈을 만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저의 꿈은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행복하게 살도록 돕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꿈을 위해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도 이 계획의 일환이며 앞으로 자기계발과 관련된 책들을 계속 써내려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30년 뒤에는 장학재단을 설립해 전 세계의 어린이들이 자신만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후원해 주고 싶습니다.

Question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Answer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사고의 폭을 넓혔으면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인생에 정답은 없으니까요. 그래도 제가 드리는 말이 조금이나마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동남권 건설교통 기술사업 지역거점 센터’ 개소식

부·울·경 지역 유일한
건설교통기술 거점센터.
산업부산물을 이용한 친환경
개발 사업...지역 경쟁력 제고 및
고용창출 효과 기대



우리 대학은 지난 9월 24일 오전 11시 승학캠퍼스 산학연구관 3층 세미나실에서 ‘동남권 건설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동남권 건설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는 건설 및 교통 분야의 연구 및 기술 지원기관이 없었던 동남권역에 지역 거점의 연구조직과 지원시스템을 마련해 지역 단위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특화기술 및 핵심 인재를 양성, 지속가능한 건설교통 연구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권오창 총장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조대연 본부장, 부산시 김기영 산업정책관, 건설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장 강현찬 교수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건설교통기술사업 지역거점센터를 맡고 있는 강 교수는 “센터 설립을 위해 도움을 주신 본교 및 국토교통부, 연구진 등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며, “우리는 동남권 건설교통기술을 대표하는 전문기관으

로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에 전념하고 그 성과를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지역 브랜드가 될 것이다”고 답했다.

동남권 건설교통기술사업 지역거점센터는 우리 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강현찬, 김진후 교수와 환경공학과 성낙창 교수, 토목공학과 정성교 교수를 중심으로 ‘산업부산물을 이용한 에코산업단지용 친환경 복토재 및 건설재료 개발’을 연구하고 있다.

이 연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4년 8개월 동안 연구비 약 60억 원을 지원받는다. 센터는 향후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토교통부 및 동남권의 지자체에 지속적인 사업제안과 함께 특성화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R&D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 대학은 지난 5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유일하게 동남권 건설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로 선정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 사하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 개소식’

9월 1일부터 사하구 內 80개
보육시설에 운영 시작,
어린이 맞춤형 식단과 위생관리
프로그램 등 제공



우리 대학은 지난 9월 27일 승학캠퍼스 산학연구관 1층에서 ‘부산사하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이번 개소식에는 권오창 총장을 포함해 김동규 산학협력단장과 부산시 복지건강국 박호국 국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영애 청장, 우리 대학 병원 김상범 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개소식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권 총장은 “영·유아기에 형성되는 영양과 식습관은 정신적·신체적 발달뿐 아니라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사하구 어린이들의 균형 성장을 책임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우리 대학에 유치하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부산 사하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이달 1일부터 급식 관리를 희망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20인 이상 100인 미

만) 80개를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다. 센터는 전문 영양사가 매달 균형 잡힌 식단을 작성해 사하구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 제공하고, 순회방문 서비스를 통해 영양·위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어린이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와 표준 레시피 개발, 조리 종사자 교육프로그램 등도 제공한다.

센터장을 맡고 있는 식품영양학과 윤은주 교수는 “체계적인 급식 관리를 받기 어려운 100인 미만 보육시설 어린이와 학부모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위생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대학은 지난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선정돼 오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 4개월 동안 약 10억 5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대규모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위한 ‘물관리연구사업’시행

오는 2016년 1단계 연구기간까지
기후변화 대비한 경제적 기술 개발

국토교통부 주관 ‘2013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에 선정돼 지난 9월 출범한 ‘동남권 건설교통기술사업 지역거점센터’가 본격적인 사업연구에 들어갔다. 주요 공과 사업 가운데 하나인 ‘물관리연구사업’에서는 ‘대규모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을 주요 과제로 기후변화 등의 수문환경 변화 시 믿을 수 있는 청정 용수 생산과 저수량 확보를 위한 지하 저수지의 경제적 구축 기술개발, 시험설비 구축 및 운영, 지하저수지 관련 법, 제도 및 경제성 연구 등이 주요 연구내용으로 다뤄지며, 우리 대학은 총 사업비 135억 원 가운데 정부출연금 약 34억 원을 연구비로 지원받게 되었다.

과제책임자로는 박남식 토목공학과 교수를 비롯하여 토목공학과 이재원, 최재호, 김영모 교수, 환경공학과 안영희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심영규 교수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한다. 또한 (주)팬아시아원터, (주)지오그린21, KIST, 지오택건설터트(주), (주)이피에스엔지니어링은 참여기업으로, 송실대, 국민대, 경남대, 부경대는 참여대학으로 선정되었다.

총 5년의 연구기간 중 1단계 기간이 끝나는 오는 2016년 6월 14일까지 우리 대학 사업단은 지정 과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며, 1단계 종료 후 평가를 거쳐 2단계 연구 여부가 결정된다.

우리 대학이 지난 8월 16일 ‘BK21 플러스(Brain Korea 21 Program for Leading Universities & Students) 사업’의 ‘미래기반 창의인재양성’에 선정됐다.

올해부터 2019년까지 7년간 진행될 ‘BK21 플러스 사업’은 석·박사급 창의인재 약 1만 8천 500명을 지원함으로써 창조경제를 이끌어 나갈 핵심 인재로 육성하고, 지방대학원에 대한 지원 강화로 지역사업을 이끌 첨단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자 마련됐다. 우리 대학은 전국 108개(345개 사업단, 866개

사업팀) 신청 대학 중 사업비 기준 31위를 차지, 총 1개의 사업단과 4개의 사업팀이 선정돼 약 11억 8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국제 통상 분쟁 조정전문가 양성사업단 단장을 맡고 있는 이학춘 국제전문대학원장은 “동아대가 국내 최초로 국제 통상 분쟁 해결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며, “이번 사업이 활성화되면 기업은 국제 통상 분쟁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수출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BK21 플러스 사업’ 선정

사업비 기준 전국 108개
대학 중 31위,
약 11억 8백만 원 지원 받아
“국내 최초 국제 통상 분쟁
해결 전문가 양성”

구분	분야	사업단(팀)장	사업단(팀)명
사업단	인문사회	이학춘(국제학)	국제 통상 분쟁 조정전문가 양성사업단
	인문사회	최형림(경영정보학)	항만·물류 스마트 정보 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 사업팀
사업팀	과학기술	황영현(국제관광학)	관광·현대 서비스 혁신 연구팀
		강봉순(전자공학)	차세대 스마트 전자소재 핵심기술 사업팀
		강상모(기계공학)	해양플랜트 탐사·해석 모듈 창의설계 인력 양성팀

우리 대학 병원, 보건복지부 광역치매센터 선정

부산지역 주민의 치매 예방 및 치료에 다양한 도움을 줄 것



우리 대학 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광역치매센터로 선정되어 부산지역주민에게 치매의 치료 및 예방에 있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의 광역치매센터 선정 사업은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내 치매 치료·돌봄기관에 대한 서비스 기술지원 및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수행할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치매관리법에 따라 전국 16개 특별·광역시 중 11개 광역센터를 선정하여 운영한다.

부산시에서는 지난 6월 18일 광역치매센터 지정 대상자를 공고, 광역치매센터 운영계획서와 신청기관 조사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우리 대학 병원을 우선순위 대상으로 결정하고 28일 관련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다.

이번 선정으로 우리 대학 병원 광역치매센터는 10억 원의 설치비를 포함 3년간 총 24억 원의 운영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되는데, 부

산광역시의 예산지원 및 관리를 받아 치매 관련 대책 수립, 치매관련 자원조사·연계 및 기술지원, 전문교육·훈련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부산지역 주민의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 강화, 치매환자의 맞춤형 치료 및 케어 강화, 효율적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 치매집중관리 병동 설치, 치매가족지원 강화 및 사회적 인식개선 등 치매관리 서비스 향상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동안 우리 대학 병원은 보건복지부 추진 치매환자 등록 연구사업에 전국 31개 참가 병원 중 두 번째로 많은 등록규모를 달성, 치매관련 연구사업, 지역주민홍보 및 무료건강강좌, 치매관련 교육 및 인력양성사업, 보건소 운영, 치매 예방 치료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한 치매거점병원 구축사업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선정에 이러한 활동들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대학 병원 김상범 원장은 “이번에 선정된 광역치매센터가 기존 부산울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부산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부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와 연계하여 부산지역의 공익적 보건의료사업과 고령화 및 노인건강문제 해결에 시너지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아대병원 광역치매센터 주요사업내용

치매에 대한 지역주민 홍보, 교육 / 치매 전문인력 교육 / 부산광역시 치매지식정보 포털 운영 / 치매관련 학술대회 개최 / 치매상담센터 운영 / 치매조기검진사업 / 치매관련 시설 질관리 / 치매집중관리병동 활성화 / 치매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 / 치매관리 통합 상담콜 서비스 / 치매환자 권익보호 활동

이비인후과, 부산·경남 최초 네비게이션 시스템 도입

수술 후 높은 효과 및 안정성을 확보해 환자의 신뢰 구축에 도움

우리 대학 병원 이비인후과가 부산·경남에서 최초로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술을 시행한다. 이번에 도입된 네비게이션(Navigation) 시스템은 이비인후과영역 수술을 위한 무탐침 정위 기법 장비로서 비용중 수술, 비용중을 동반한 부비동 수술, 부비동 재수술, 종양, 외상 등 질환의 적응증 수술시 사용하는 환자의 중요한 해부학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미지화 시켜 수술 시 발생하는 합병증을 줄이고 재수술 비율을 낮추는 데 사용하는 장비다.

정확한 해부학적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수술환자의 CT 이미지를 연동해 사용하는 네비게이션 장비는 이비인후과영역 중 코 수술 환자에게 적용하여 재수술이나 해부학적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수술 후 높은 효과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리 대학 병원 ‘사할린 Medical Care’ 및 나눔 의료 진행

진료·검사 건 수, 사할린 지역 방문병원 중 역대 최대 병원 위상 높이고 러시아 환자 유치에 크게 기여



우리 대학 병원이 여선희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오종영 진료부장 등 12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을 통해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러시아 사할린 주 여러 도시에서 병원의 이미지를 높이고 브랜드를 향상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돌아왔다.

이번 방문은 동아대병원의 사할린 주 소재 기존환자에 대한 Medical After Care를 통해 유대감을 확보하여 재방문을 유도하고, 의료진에 의한 현지 진료 및 각종 검사와 나눔 의료를 통해 신환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할린 주의 유즈노 사할린, 네벨스크, 코르사코프 도시에서 진행된 4일간의 진료일정에서 오종영 교수(영상의학과), 한성호 교수(가정의학과), 김태효 교수(비뇨기과), 박종성 교수(순환기내과)로 구성된 의료진은 초음파, 심전도 등의 의료장비를 갖추고 열정적이고 성의있는 진료를 통해

우리 대학 병원의 우수한 의료수준을 사할린지역 주민들에게 펼쳐 많은 사랑을 받았다. 사할린 주 현지 언론에서는 행사 전에 관련 내용을 홍보하였는데 특히, 국영방송인 러시아 채널1과 코르사코프 지역방송사에서 진료 당일 행사장을 직접 방문, 관련 내용을 취재하고 진료의사 및 환자를 인터뷰하여 방송 및 기사화하는 등 높은 관심을 가졌다. 또한 동아대 병원은 이번 진료활동을 통해 증상이 심각하여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환자를 선별, 병원으로 초청하여 무료수술 등을 시행, 한국과 러시아간의 우호증진에도 적극 기여할 예정이다. 한편, 방문단은 코르사코프시 보리소브나 시장의 초청을 받아 시청을 방문하였는데, 우리 대학 병원 김상범 원장 명의의 시 지정 160주년 축하인사장을 전달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에 상호협력한다는 내용의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였다. 4일간의 진료결과 진료 환자수 400여 명, 검사 환자수 300여 명으로 그동안 사할린지역 진료방문병원 중 역대 최고의 진료실적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단장인 여선희 사무처장은 “이번 진료방문행사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병원 외국인 환자 중 가장 비율이 높은 사할린 지역을 마켓타겟으로 선정하였는데, 이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계형성을 통해 유대감을 강화하고 병원위상을 높여 향후 의료관광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흉부외과 우종수 교수팀, 관상동맥우회술 부산 유일 1등급

수술 후 사망률 낮고 환자 관련 각종 지표 최우수



은 2010년 7월부터 2년간 종합병원 이상의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한 의료기관 81곳(6,143건)을 평가한 결과, 우리 대학 병원을 포

우리 대학 병원 흉부외과 우종수 교수 수술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허혈성심질환 환자에 시행한 관상동맥우회술의 적정성 평가 결과 부산지역에서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지난 7월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0년 7월부터 2년간 종합병원 이상의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한 의료기관 81곳(6,143건)을 평가한 결과, 우리 대학 병원을 포

함한 전국 22개 병원이 관상동맥우회술 1등급(90점 이상)으로 분류되었다고 밝혔다.

관상동맥우회술은 심장 근육에 혈액·산소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졌을 때 다른 부위의 자기 혈관을 활용, 피가 관상동맥을 거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는 수술이다. 이번 평가는 ▲관상동맥우회술 수술 총 건수 ▲내흉동맥을 이용한 관상동맥우회술률 ▲퇴원 시 아스피린 처방률 ▲수술 후 출혈 또는 혈종으로 인한 재수술률 ▲사망률(생존지수) ▲수술 후 입원일수 지수 등 총 6개 지표를 이용해 실시되었다.



★ 우리 대학과 (사)부산국제건축문화제, 부산국제건축디자인워크숍 개최

나눔과 공동체 의식, 동래읍성의 문화적 잠재성을 깨우다

글! 정민석 대외협력처 홍보팀

프랑스 파리는 샹젤리제 거리를 중심으로 개선문, 콩코르광장, 자크마르-앙드레 박물관 등 세계적인 문화재들이 잘 보존되어 있다. 오래된 건축물과 아기자기한 상점, 거리의 문화공연 등은 관광객의 감성을 자극해 이곳을 하루 5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관광의 명소로 만들었다. 문화재와 주거환경이 뒤엉키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도시. 그렇다면 무분별한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고장 부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 ‘부산국제건축디자인워크숍’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한다.

- 01 동래읍성 전경
- 02 2013년 8월 21일 디자인 워크숍 개최식
- 03 2013년 8월 22일 디자인 워크숍 참가 학생들
- 04 승효상 건축가 강연
- 05 2013년 8월 23일 디자인 워크숍 최종 발표
- 06 2013년 8월 23일 디자인 워크숍 시상식 및 폐회식

(사)부산국제건축문화제는 부산지역의 건축 현안을 파악하고 이를 새로운 환경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003년부터 매년 ‘부산국제건축디자인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의 젊은 건축학도에게 미래 건축가로 성장할 수 있는 학습의 장과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해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부산국제건축디자인워크숍’은 우리 대학이 지난해부터 공동 주최하고 있다.

지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나눔과 살림(Sharing and Regenerating)’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는 우리대학 건축학과 교수인 조용수 국제건축디자인워크숍 위원장을 중심으로 서울대와 성균관대,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일본 게이오대, 중국 청화대 등 국내외 우수 대학 학생들과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14명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동안 부산국제건축디자인워크숍은 자갈치 시장과 광복동 미화당백화점, 해운대 미포 등 문화재의 보존과 낙후된 시설의 재개발 방향을 제시해 왔다. 올해 워크숍에서는 학생 참가자 3명과 국내의 건축전문가 2명이 튜터로 나서 동래구 복천동 동래읍성 일대를 연구한 가운데 대만국립과학기술대학교의 ‘돌아서 땅을 공유하다(Turn Around, Share the Ground)’가 최고점을 받아 부산광역시장상을 수상했다. 이 작품은 경사가 심한 복천동 취락지 부근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그동안 문제점으로 여겨졌던 공공공간의 부채를 해소하고 답답하게만 느껴졌던 마을에 숨통을 틔워줬다는 평을 받았다.

이번 ‘2013 부산국제건축디자인워크숍’의 참가자들은 4박 5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현장답사와 특별강연, 프로젝트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다. 우리 대학 대표로 참가한 정재우(건축학과 4) 학생은 “대회특성 상 현장답사의 비중이 높고 현실적인 결과물을 연구하다보니 체력적으로 힘든 적도 있었다”며, “하지만 각 나라의 건축스타일을 공유하고 저명한 교수님들께 조언을 구하면서 건축학적인 시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워크숍 중간에는 건축학도들이 주목할 만한 특별 강연도 있었다. ‘빈자의 미학’이라는 독특한 건축 철학으로 국내 건축계에 잘 알려져 있으며 ‘제 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공동 감독으로 활동하기도 한 승효상 이로재건축사무소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메타폴리스, 미래의 도시’란 주제로 진행된 승 대표의 강연에서는 평소 ‘나눔’과 ‘공동체’를 중시하는 그의 따뜻한 마음과 건축학적 식견이 그대로 묻어나 학생 참가자들은 물론, 세계 각지의 건축 전문가들에게도 깊은 영감을 주었다는 후문이다.

마지막으로 (사)부산국제건축문화제는 ‘2013 부산국제건축디자인워크숍’의 12개 수상작을 부산건축문화제 기간인 지난 10월 22일부터 27일까지 부산 영화의 전당 다목적 홀에 전시, 일반시민들에 공개했으며 자료집 발간을 통해 유사지형과 다른 지역에서도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책’ 대신 ‘사람’을 빌려드립니다 Living Library in Dong-A

지난 2000년 덴마크의 사회운동가 ‘로니 에버겔’은 한 페스티벌에서 재미난 기획을 한다. 도서관에서 책 대신 사람을 빌려주어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게 하자는 것이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로 잘 알지 못해 가질 수밖에 없었던 타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고정관념을 줄이자는 의도로 기획된 이벤트였다. 여기서 Living Library의 역사가 시작됐다.

- 01 성현숙 KNN PD
- 02 이가연 간호학과 교수
- 03 염창홍 체육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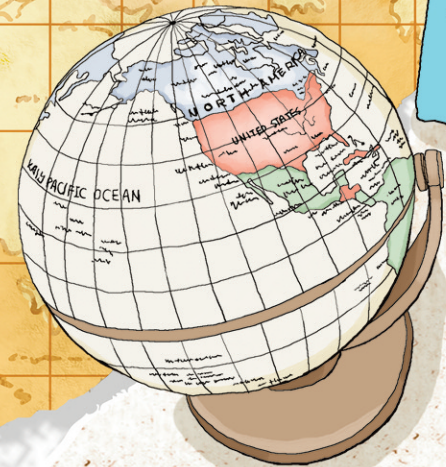
한 사람의 인생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한 권의 책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다. Living Library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다. 활자로 된 책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책과 소통하면서 지식과 정보, 경험을 공유하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대학 도서관에서는 전국 도서관 중 최초로 ‘살아있는 책’과 쌍방 소통을 하는 ‘리빙 라이브러리 인 동아’(Living Library in Dong-A)를 개최했다. 자신의 분야와 위치에서 즐겁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 남들과 다른 길을 걸어왔던 특별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책이 되어 독자가 된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 책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소통의 자리였다. 이날은 ‘3권의 책’이 학생들에게 ‘대출’돼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행사를 기획한 한림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2과 최정희 과장은 “요즘 학생들이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에 길들여져 있어 소통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리빙 라이브러리 인 동아’와 같은 행사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나눔으로써, 학생들이 소통에 대한 사고가 깊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9일 처음 ‘살아있는 책’과 대화 시간을 가진 후 ‘건강한 대학생살’을 주제로 진행된 5차 ‘리빙 라이브러리 인 동아’는 23명의 학생에게 염창홍 교수(동아대 체육학과), 이가연 교수(동아대 간호학과), 성현숙 KNN PD 등 3명의 ‘살아있는 책’이 대출됐다.

살아있는 책으로 학생들에게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준 이가연 교수는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학생들과 함께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눴다”며, “신선한 경험이었고, 앞으로 학생들이 다시 대출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학생들은 보통 텍스트로 이루어진 책이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뤄지지만 각계각층의 저명한 인사들을 책으로 선정, 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 신선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우정완(동아대 법학과 3) 학생은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읽는다는 것이 흥미로웠다”며,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리빙 라이브러리 인 동아’는 지금까지 총 21명의 책이 173명에게 대출됐다.





my ticket
Pass

XXXXX
pack
memo 2



★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곳, 칠레 북서부 아타카마 사막 횡단기

극한 마라톤의 꽃, ‘아타카마’에서의 일주일

세계 4대 극한 마라톤 중 가장 난이도가 높다는 ‘아타카마 사막 마라톤’. 철저한 준비 끝에 이 마라톤에 참가한 국제관광학과 김정철 학생은 극한의 환경에서 물을 포함한 최소한의 장비로 일주일의 시간을 버텨야 했다. 곳곳하게 아타카마 사막 횡단을 성공하며 스스로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자연의 위엄 앞에서는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생생한 모험의 순간을 되새겨본다.

Episode 01 프롤로그

2013년 3월 3일부터 9일까지 나는 칠레 북부에 위치한 아타카마(Atacama) 사막마라톤에 참가했다. 6박 7일간 250km를 횡단하면서 오래 전부터 준비한 자발적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것은 바로 매년 봄철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의 폐해와 전 세계 사막화의 심각성을 온몸으로 알리기 위한 기금후원. 1km 뒀 때마다 UN사막화방지기금 5달러를 기부하는 일이었다.

Episode 02 아타카마 사막 도착, 그리고 두근거림

한국에서의 오랜 연습으로 철저하게 대비하고, 학교를 비롯한 여러 기관의 도움과 응원에 힘입어 드디어 신비의 사막 아타카마에 도착했다. 몇 번의 비행기와 차편을 갈아타고 어렵게 도착한 작은 오아시스 마을에 전 세계 참가자들이 북적거리며 생명의 활기를 불어 넣고 있었다.

경기 하루 전 주최 측의 경기 브리핑과 장비검사, 메디컬 검사 그리고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신체 포기각서 등을 작성했다. 앞으로 만나게 될 고생에게 인사하며 사막과 어울리지 않는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모닥불 앞에서 패딩점퍼를 꺼내 입고 잠을 청했다.

Episode 03 출발 = 새로운 도전

3월 3일 아침 8시, 마라톤이 시작되는 시간. 나는 컨디션이 좋았다. 다들 들뜬 분위기 속에 나도 맨 앞줄에 서서 기념사진을 찍고, 흘러나오는 ‘강남스타일’에 맞춰 신나게 춤도 췄다. 출발 신호에 맞춰 총알처럼 튀어나갔지만 해발 3,270m의 고산지대다 보니 500m만 가도 숨이 찼다. 건조한 지형을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며 CP(Check Point) 1, 2 지점을 재빠르게 통과했다. 문제는 CP3으로 향하는 길에서 터졌다. 나지막한 오르막길이 끝없이 이어지는 협곡 구간에서 수분부족과 무리한 움직임으로 몸에 경련이 일기 시작했다. 뜨거운 햇빛을 피할 그늘도, 도와줄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은 내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바위 위에 다리를 올리고 잠시 휴식을 취하며 어떻게든 근육을 이완시키려 노력했다. 새로 신은 양말에 구멍까지 나는 모습을 보며 ‘각오했던 만큼 고생하는구나’ 생각했다. 앞날이 걱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첫날을 무사히 넘긴 것에 감사했다. 수많은 강과 협곡들을 지나면서 왜 아타카마 사막 마라톤이 세계 4대 극지 마라톤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지도 알게 되었다.

강과 협곡을 지나다 진짜 사막을 만났다. 레이스란 것을 잊을 정도로 나를 압도하던 빅 샌드 언덕(Big Sand Dune),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 그리고 카도 카도 끝이 없었던 소금사막 등 다채로운 자연이 펼쳐졌다.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것은 레이스 중 어느 순간 나 혼자 걷고 있을 때였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며 복잡한 생각은 지워지고 머릿속이 가벼워졌다. 고독과 고난 속에서 아마 가장 완벽한 반성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것 같았다.

Episode 04 나를 이겨내야 하는 시간

3일차부터 몸에 이상이 왔다. 이때부터는 레이스가 아닌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었다. 굳어버린 소금 결정체들이 신발을 뚫고 들어와 발의 상처와 물집에 고통을 더했고, 발톱 4개는 빠지기 직전이었다. 그래도 함께 레이스를 펼치는 이가 있어 위로가 되었다. 사막에서는 선글라스를 끼지 않으면 실명할 수도 있는데, 한 분이 선글라스를 잃어버렸기에 내 여분의 선글라스를 선물 드리기도 했다.

5일차 대회 하이라이트 구간인 롱 데이(Long Day)에 접어들었다. 사실상 마지막 코스인데 1박 2일 동안 80km를 가야 했다. CP3부터는 해가 지는 시점이라 야광봉이 놓여 있었다.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어 걷기 좋은 조건이라 생각했다. 이날은 함께 한 한국인 동료들을 먼저 보내고 나 혼자 이동했다. 침묵같은 어둠 속에서 혼자 걷다보니 마치 우주 속에 나 홀로 걷고 있는 듯 했다. 진통제를 먹어가며 나아간 사막 끝에서 여명을 맞이했다. 그리고 나는 롱데이 마지막 주자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Episode 05 결승으로의 마지막 발걸음

6일차 마지막 날, 8km만 더 가면 레이스가 종료된다. 부어서 발이 들어가지 않는 신발을 포기하고 맨발로 걸었다. 100번 포기하고 싶었고 101번 다시 일어나겠다고 마음먹었던 시간들이 믿어지지 않았다. 멀리서 북소리가 들려오고 점점 커지는 환호성과 박수 소리, 카메라 셔터 소리 그리고 내 목에 걸린 메달과 이어지는 포옹까지... 순위와 상관 없는 축제였다. 내가 흘렸던 땀과 노력, 고통을 잊은 희열과 감동은 평생 기억 속에 남을 것이다.





※ 왼쪽부터 김성용 선수, 송미현 감독, 최성환 선수



★ 동아대 씨름부 최성환·김성용 선수, 그리고 명장 송미현 감독을 만나다

최강의 역사(力士), 승리의 역사(歴史)를 써내려가다

글 '박민정 대외협력처 홍보팀

동아대학교 씨름부가 명장 송미현 감독의 지휘 아래 명실상부 대학최강의 자리에 올랐다. 올해 대한씨름협회가 개최한 6개 대회에 5차례 출전, 모두 결승에 오른 대학씨름의 강호 동아대는 지난 9월 경남 마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0회 학산 김성률배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전국대회 2관왕에 올랐다. 이로써 연말에 있을 대한씨름협회 정기총회에서 대학부 최우수 단체로 선정됐다. 지난 9월 경북 경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IBK기업은행 2013 추석장사씨름대회'에서 최성환(체육학과 3)·김성용(체육학과 3) 선수가 큰일을 뒀다. 최성환 선수는 약 30년 만에 대학생 신분으로 한라장사(110kg 이하)에 올라 모두를 놀라게 했으며, 김성용 선수는 태백 1품(80kg 이하)을 차지하는 등 동아대 씨름부의 명성을 이어갔다.

동아대 씨름부 제10회 학산 김성률배
전국장사씨름대회 우승

최성환 선수, 약 30년 만에
대학생 신분으로 한라장사에 올라

명실상부 대학최강 씨름부 탄생

승승장구 동아대 씨름부, '2013 추석장사씨름대회'서 승리를 거머쥐다

지난 9월 경북 경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IBK기업은행 2013 추석장사씨름대회'에 동아대 씨름부 최성환(체육학과 3)·김성용(체육학과 3) 선수가 출전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순탄하게 예선전을 거친 최성환 선수는 '2010 청양대회'와 '2013 보은대회'에서 한라장사를 거머쥔 손충희 선수와 맞붙으면서 험난한 결승전을 시작했다. 첫 번째 판부터 만만치 않았다. 두 번의 연장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승부를 내지 못해 대한씨름협회 규정 하에 경고 승리로 첫 번째 판을 가져왔지만 이내 손 선수가 최 선수를 등재기로 놓히면서 1-1 동점을 만들었다. 세 번째 판과 네 번째 판도 나란히 승리를 가져갔다. 경기는 결국 마지막 다섯 번째 판으로 이어졌고 승리의 여신은 최성환 선수에게 미소를 지었다. 최성환 선수는 자신의 주특기인 들배지기로 손충희 선수의 중심을 흐트린 다음 연장전 승부 끝에 배지기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최성환 선수는 "정말 존경하는 선배와 결승전에서 만나 부담이 많이 됐지만 할머니와 부모님, 그리고 많은 친척들이 응원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으신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며, "지금 이 상황이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너무나 기쁘다. 감독님의 열정적인 지도와 은혜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응원해주는 동아인 덕분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성용 선수는 8강부터 결승까지 파죽지세로 경기를 진행했지만, 지난해 설날장사대회에서 태백장사에 오른 문준석(제주도청) 선수와 접전 끝에 태백 1품에 머물러야 했다. 이날 김 선수는 윈렛걸이와 오금당기기, 뿌러치기 등을 잇달아 선보인 문 선수에 첫 번째 판을 내주어야 했다. 이어 두 번째 판에서는 김 선수가 안다리걸기로 문 선수를 제압해 기회를 만들어 갔다. 세 번째 판에서 김 선수는 실 틈 없이 공격을 퍼부었지만 문 선수가 노련하게 이를 피해가며 승리를 가져갔다. 이어진 네 번째 판에서 김 선수는 문 선수의 뒷무릎치기로 아쉽게 패해 태백장사의 자리를 내주게 됐다. 김성용 선수는 "아쉽게 1품에 머물게 됐지만 실업팀 선배들과 함께 경기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며, "다음 경기에서는 더 좋은 성적으로 동아인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승리의 비결엔 명장이 있었다!

이들의 선전에는 명장 송미현 감독이 있었다. 1985년 만 스물다섯의 젊은 나이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송미현 감독은 동아대 씨름부에서 30년 가량 학생들을 지도해 왔다. 동아대학교 씨름부를 명실상부 최강으로 이끈 명장 송미현 감독은 '제10회 학산 김성률배 전국장사씨름대회'서 우수지도자상을 받았다. 송미현 감독은 "최성환·김성용 선수가 모두 대학생임에도 좋은 성적을 내주어 정말 고맙고 감개무량하다"며, "언제나 지원을 아끼지 않는 동아대에 감사드리며, 우리 씨름부는 항상 동아인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0월 8일에는 최성환, 김성용 선수가 송미현 감독과 함께 승학캠퍼스 총장실을 방문, '2013 추석장사 씨름대회'에서 받은 상금 일부를 모교에 발전기금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01 지난 9월 20일 경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IBK기업은행 2013 추석장사씨름대회' 한라장사결정전에서 대학생 신분으로 첫 장사에 오른 최성환 선수

02 최성환 선수가 이 경기에서 이긴 뒤 환호하고 있다.

03 최성환 선수·김성용 선수가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04 김성용 선수가 경기를 펼치고 있다.

★ 동아대 태권도부 김태훈·김휘랑 선수

멕시코에서 세계 최강을 외치다!

‘2013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메달 획득
김태훈 54kg급 금메달·김휘랑 62kg급 은메달 쾌거

글 | 박민정 대외협력처 홍보팀

태권도 종주국인 우리나라가 6년 만에 세계태권도선수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종주국의 자존심을 지킨 종합우승의 중심에는 본교 태권도학과에 재학 중인 김태훈(20), 김휘랑(23) 선수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 7월 15일부터 21일(현지시간)까지 총 7일간 멕시코 푸에블라에서 열린 ‘2013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는 총 134개국 950명의 선수가 참가해 대회 기간 내내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 가운데 김태훈, 김휘랑 선수가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 동아인의 저력을 전 세계에 당당히 알렸다.

김태훈 선수는 대회 넷째 날인 7월 18일 54kg급 결승에서 대만의 치아린 슈 선수를 상대로 7-0 완승을 거둬으로써 대회 2연패를 달성, 경량급 월드 챔피언으로 우뚝 섰다. 김휘랑 선수는 대회 마지막 날인 7월 21일 62kg급 결승에서 호주의 카멘 마틴과 붙어 3회전 중반까지 3-2로 앞섰으나, 체력적인 부담과 종료 2초 전의 뒤후리기 머리공격으로 아쉽게 은메달을 획득했다. 세계선수권대회가 끝난 후 김태훈, 김휘랑 선수를 만나 그들이 세계 정상의 자리에 서기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Question

대회가 끝났는데도
설 틈이 없습니다.

김휘랑 운동이라는 것이 꾸준히 하지 않으면 페이스를 잃기가 쉽습니다. 지속적으로 운동량을 조절하고, 체중관리를 해야 다가오는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설 수가 없습니다.

김태훈 매 경기마다 일정이 나오면 이에 맞춰서 자신을 다독이고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가 남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치열한 머리싸움이 필요합니다.

Question

‘2013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두 선수 모두 훌륭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태훈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체력훈련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에 체중까지 감량해야 해서 더욱 힘들었습니다. 체력은 키워야 되는데 체중은 감량해야 하니 스트레스가 말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함께 고생해준 감독님과 선배들이 있어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김휘랑 세계 많은 관심과 응원 보내준 분들께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못해 죄송스럽습니다. 이번 대회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체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보다 멕시코가 고지대에 있어 체력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꼈습니다. 예선전부터 체력 안배를 잘 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고, 이로 인해 결승전에서 아쉬운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시엔 정말 아쉬웠습니다.

Question

두 선수 모두 어떻게 태권도를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김휘랑 사실 저는 취미생활로 태권도를

김태훈 (태권도학과 1학년)



김휘랑 (태권도학과 4학년)



접했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중학생 때 선수 생활을 시작했는데,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시절 뚜렷한 메달이 없어 진학 결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동주 감독님이 제가 능성만 보고 동아대로 스카우트를 했고, 일반학생으로 입학하게 됐습니다. 이후 감독님의 믿음에 보답하고자 열심히 운동을 했고, 점차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김태훈 저 역시 취미생활로 태권도를 하다가 중학교 때 선수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끝에 고등학교 시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고 동아대에 스카우트 됐습니다. 이후 이동주 감독님의 세심한 지도로 각 대회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습니다.

Question

운동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있으시다면?

김태훈 글썽요. 매번 운동을 할 때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그 후에 느끼는 보람을 생각한다면 이게 힘들다고 말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아직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해본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휘랑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훈이 말처럼 저도 운동을 할 때 힘들다고 생각하

니다. 하지만 힘든 시간 보다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더 많으니까 계속해서 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Question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김휘랑 저는 곧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실업팀에 가셔도 열심히 운동에 매진해 동아인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훈 저는 아시안게임과 세계선수권, 올림픽 등에 계속해서 출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동아인의 명성을 더욱 빛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아학숙 제13대 방정항 신임 이사장 취임

4가지 대학 미래상 제시,
“창조적인 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



우리 대학 학교법인인 동아학숙은 지난 9월 25일 구 덕캠퍼스에 위치한 법인 대회의실에서 ‘제12대 박필룡 이사장 이임 및 제13대 방정항 신임 이사장 취임식’을 열었다. 이번 취임식에는 법인

의 이사와 감사진을 포함하여 권오창 총장과 한석정 부총장, 제종모 총동문회장, 김상범 병원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제12대 박필룡 이사장은 이임사를 통해 “부민캠퍼스와 부·울 권역심뇌혈관센터 준공은 대학과 병원의 발전에 엄청난 동력을 불어넣었고, 전임 이사장님과 총장님, 그리고 여러분의 공덕으로 준공식 참석의 기회를 얻어서 영광이었다”며, “임기 중에 만난 다양한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고 가슴 깊이 간직하겠다. 앞으로 변함없는 애정으로 동아의 발전과 영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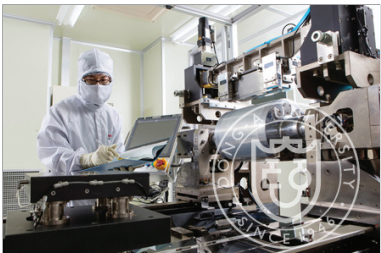
이어 제13대 방정항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 대학이 명문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해준 역대 이사장님과 박필룡 이사장님, 동아 관계자분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동아인 모두가 새 시대를 열어가는 창조적인 사고로 동아대학교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지금의 위기는 능히 기회로 바뀔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방 신임 이사장은 이날 “사회적 공헌도가 높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내실 있는 대학, 합리적 의사결정과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열린 대학, 대학발전의 큰 그림과 더불어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는 올곧은 대학, 글로벌 시대의 주역으로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재정립하는 창조적 대학”이라는 4가지의 대학 미래상도 밝혔다.

한편, 동아학숙 제13대 방정항 이사장은 본교 행정학과 교수를 거쳐 사회과학대 학장, 정책과학대학원장, 언론홍보대학원장을 지냈으며, 지난 2009년부터 동아학숙 이사로 재임하는 등 본교와 깊은 인연을 맺어왔다.

우리 대학, 전국대학 지식재산 경쟁력 평가서 종합순위 18위

전국 4년제 113개 대학 대상, 상위 20위권에 부·울·경 소재 대학 중 유일하게 이름 올려
IP 문화·IP 역량·글로벌 경쟁력·산업기여도 4개 부문 57개 지표 분석



순 위	대 학
1	한양대학교
2	고려대학교
3	포스텍(POSECH)
⋮	⋮
18	동아대학교
19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우리 대학이 전국 대학 지식재산(IP) 경쟁력 평가에서 종합순위 18위를 차지했다. 전자신문과 대한변리사회, 웹스, 네오알앤에스가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는 특히 10건 이상을 보유한 전국 4년제 1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IP 문화와 IP 역량, 글로벌 경쟁력, 산업기여도 4개 부문 57개 지표를 분석한 결과, 동아대는 부산·울산·경남 소재 4년제 대학 중 유일하게 상위 2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 대학은 특히 ‘산업기여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일자리 창출 역량평가와 산업계 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산업기여도 부문에서 우리 대학은 5위를 기록했으며, IP 관련 교육연구 환경전반 평가와 IP 관련 정책·지원·시스템 평가, 발명·창업에 대한 학생 참여 문화 등으로 이뤄진 ‘IP 문화’ 부문에서는 24위를 차지했다. 또한 국내 출원·등록된 특허 가치를 평가한 ‘IP 역량’ 부문에서는 20위를, IP 확장성과 글로벌 지원 역량을 평가한 ‘글로벌 경쟁력’ 부문에서는 29위를 기록했다.

전자신문미래기술연구센터는 대학 알리미 공시 데이터 분석 자료와 대학 산학협력단 실사, 특허청 통계 등 2012년 대학 IP와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이번 대학 IP 경쟁력 평가를 분석했으며, 올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각 평가기관이 대학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면밀히 평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경쟁력 평가는 창조경제 시대에 IP 창출·보호·활용 생태계의 근거지를 대학으로 보고, 이를 제대로 측정해 국가 IP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실시됐다.

우리 대학, ‘1000대 기업 CEO’에 부산·경남 사립대 중 최다 배출

국내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20명…전국 대학 중 14위
(주)농심 신춘호 회장·(주)백센타이어 강병중 회장 등



최근 헤드헌팅 전문기업인 유니코써이치가 매출액 기준 국내 1000대 상장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출신 대학과 전공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우리 대

학이 부산·경남권 사립대학 중에서 가장 많은 CEO를 배출해 명문사학임을 입증했다.

국내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CEO’에 이름을 올린 우리 대학 출신 CEO는 △(주)동아타이어공업 김만수 회장(토목공학 52학번) △(주)농심 신춘호 회장(법학 54학번) △(주)백센타이어 강병중 회장(법학 61학번) △(주)반도건설 권홍사 회장(건축공학 67학번) △(주)태웅 허용도 회장(경제학 72학번) 등 총 20명으로, 전국대학 중 14위, 지방대학 중 5위를 차지했다.

한편, 18만 동문 네트워크를 자랑하는 우리 대학은 지난 2011년 ‘동아 비즈니스 포럼’을 발족했다. ‘동아 비즈니스 포럼’은 본교와 인연이 있는 기업인들이 기업 경영과 경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발전 전략을 모색, 나아가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대의에서 출범됐다.

이장호 전 BS금융지주 회장, ‘석좌교수’로 임용

지난 73년 부산은행 입행, BS금융지주 이끈 전문 금융인이 전 회장 비릇, 동아대 석좌교수 총 4명, 9월부터 강의



이장호(66) 전 BS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9월 1일자로 우리 대학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석좌교수로 임용돼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다. 임기는 1년이다.

우리 대학은 이 전 회장이 탁월한 현장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본교 석사학위 과정과 최고 경영자 과정의 학문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석좌교수로 임용했다.

지난 73년 부산은행에 입행한 이 전 회장은 사상지점장과 서울지점장, 상무, 부행장, 2006년 부산은행장 등을 거치고 2011년 BS금융지주 회장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금융인이다. 지난 14일 성세환 부산은행장에 BS금융지주 회장 자리를 내준 이장호 전 회장은 2006년 20조에 불과한 부산은행의 자산을 취임 7년 만에 43조 원으로 늘리는 등 탁월한 경영능력을 발휘했다. 또한 이 전 회장은 BS금융지주 회장 재직 시 ‘비전 2011, 최고의 지역금융그룹’이라는 경영비전을 추진, 부산은행을 현재 지역 기반 최대 금융지주회사로 성장시켰다.

지난 74년 우리 대학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1986년 경제행정학 석사를 마친 이 전 회장은 지난 6월 매경미디어그룹에서 진행한 ‘2013 대한민국 창조경제리더(상생경영부문)’로 선발되는 등 명실상부한 전문 금융인으로 평가받았다.

한편 우리 대학은 이 전 회장을 비롯해 법학전문대학원에 조무제 전 대법관,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에 박관용 전 국회의장, 국제학부에 정종욱 전 중국특명전권대사가 석좌교수에 재임용돼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박물관 소장 ‘주칠 나전가구’,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중요민속문화재 제277호…조선왕조 마지막 황후 사용
주칠 나전의걸이장 2점, 주칠 나전삼층장 1점, 주칠 나전침대 1점



우리 대학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조 마지막 황후인 순종비 순정효황후(1894~1966)의 ‘주칠 나전가구’(朱漆 螺鈿家具) 일괄이 8월 21일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77호로 지정됐다.

순정효황후가 사용한 ‘주칠 나전가구’는 총 4점으로 주칠 나전의걸이장 2점(110.5×54.5×196.0cm, 115.0×54.5×195.8cm)과 주칠 나전삼층장(105.5×48.5×196.0cm) 1점, 주칠 나전침대(208.0×136.0×93.0cm) 1점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나전

침대는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침대로는 가장 앞선 것으로 파악된다.

황실 가구인 ‘주칠 나전가구’는 가구의 품위와 예술적 가치 등을 높이 평가 받아 중요민속문화재 제277호로 지정 됐다. ‘주칠 나전가구’는 나전공예가 김진갑 장인이 1930년대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며, 주목재로는 은행목 등의 잡목을, 부목재로는 오동나무를 사용했다. 또한, 가구의 문양은 조선말기 유명한 화가들의 화본을 밑그림으로 하여 나전으로 수려하게 표현해 그 가치를 더했다.

이 가구는 순정효황후를 모신 상공의 지인이 보관하던 것을 1981년도에 우리 대학 박물관이 구입,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보존하고 있다.

박물관 정은우 관장은 “우리나라 근대사가 재조명되면서 우리 대학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다량의 유물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 영광스럽다”며, “순정효황후의 ‘주칠 나전가구’는 부산에서 두 번째로 지정된 중요민속문화재로, 고급 주칠로 도장돼 근대 나전칠기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앞으로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대학은 국보 2점과 보물 11점, 등록문화재 2점, 부산시지정문화재 20점, 부산시지정 문화재자료 5점 등 3만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故 이두옥 교수 유작, 모교에 기증

상황 H.디지털 이미지 등 총 14점
부인 고명숙 씨 “전시회 준비해준 제자들에 감사…후학 양성에 도움 됐으면”



우리 대학은 지난 9월 23일 승학캠퍼스 총장실에서 故 이두옥 교수 유작품 기증식’을 가졌다.

이날 기증식에는 故 이두옥 교수의 아내인 고명숙 여사를 비롯해

권오창 총장과 임동락 석당미술관장, 김현호 미술학과장, 제자 박기태 씨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고명숙 여사는 캔버스 위에 유화로 만든 작품 ‘상황 H’(1976년 122×163.5cm)와 ‘무제’(1985년 112×112cm), ‘디지털 이미지’(2002년 162×130cm) 등을 포함해 총 14점의 작품을 기증했다.

작품을 대리 기증한 고 여사는 “고인의 뜻을 기려 이번 기증이 후학 양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두옥 교수의 작품을 더 많은 사람들이 감상하고 교감했으면 좋겠다”며 “이 자리를 통해 전시회를 준비해준 동료 교수들과 제자들, 학교 측에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에 권 총장은 “소중한 작품을 기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부산에서 작품 활동을 하신 추강 선생님의 동양화를 보며 많은 미술학도들이 영감을 받았다”며, “앞으로 본교 학생들 또한 故 이두옥 교수의 작품을 통해 미술학적 지식과 열정을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故 이두옥 교수는 정년퇴임을 6개월 앞두고 지난해 여름 갑자기 세상을 떠나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이 교수는 살아생전 일정 시기마다 작품의 주제와 재료를 달리해 치열한 탐구열을 가진 작가로 평가 받았다. 또한 이 교수의 작품세계와 작가정신은 다양한 작품을 통해 제자들에게 전달됐다. 이 교수의 제자들과 동료들은 그를 기리기 위해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우동 부산디자인센터 전시실에서 유작전을 열었고, 280여 쪽 분량의 추모도록을 발간하기도 했다.

故 이두옥 교수는 경남 밀양 출생으로 우리 대학 회화학과를 졸업하고 모교에서 후학을 양성해왔다. 이 교수의 유작들은 부민캠퍼스 석당미술관의 보수작업이 끝난 후 내년 초에 전시될 예정이다.

우리 대학, ‘동아일보 취업 지원역량 평가’서 상위 10개 대학

4년제 198개大 중 취업·창업 인프라 및 학생 만족도 높아
△금융플랜 지원 1위 △취업 본인 적합정보 2위 등
평가 항목 상위권

우리 대학이 최근 동아일보에서 실시한 대학 평가에서 ‘취업 지원역량’ 부문 상위 10개 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그간 취업·창업 지원을 위한 우리 대학의 다양한 노력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동아일보와 채널A, 딜로이트컨설팅이 함께 한 이번 대학 평가는 기존의 평가가 대학의 연구기반과 역량에 국한, 대학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취업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핵심 키워드로 삼고, 단순히 취업률이라는 결과가 아닌 예비 취업생의 진로개척과 구직 능력을 지원하는 대학의 인프라, 그리고 지원과정에 높은 비중을 뒀다. 특히 교육 수요자인 대학생의 의견을 크게 반영했다는 점이 타 평가들과 차별화되는 점이다.

먼저 1차 평가로 전국 4년제 대학 198개 가운데, 5개 역량(△교육 △연구 △국제화 △재정 △사업화)·13개 지표로 50개 대학을 선정했다. ‘취업 지원역량’ 평가는 2개월 간 각 대학의 취업 및 창업 관련 인프라를 점검하는 한편 대학별로 4학년 학생 100명과의 설문을 통해 필요성, 이용률, 만족도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우리 대학을 비롯해 △고려대 △명지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우송대 △이화여대 △조선대 등이 선정됐다.

자세한 평가 항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상담 △자아탐색 지원(95점) △비전수립 지원(80점) △경력개발계획(90점) ▲정보 △취업 기회정보(85점) △취업 본인 적합정보(78점) △취업 전형대비정보(106점) ▲직간접 직업체험 기회 △직업체험기회(122점) △학생조직활동(54점) △외부수상활동(58점) ▲금융 △금융플랜 지원(40점) △금융혜택(35점) ▲교육과정 △정규교육과정(70점) △비정규교육과정(78점). 총점 1000점.

특히 우리 대학은 취업 지원역량 평가의 순위를 항목별로 정리한 결과 △금융플랜 지원 1위 △취업 본인 적합정보 2위 △학생조직활동 3위 △비정규교육과정 3위 등 가장 많은 4개 항목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 대학은 그간 3학년 취업동아리 ‘리더스 주니어’(Leaders Junior), 4학년 대기업 취업준비반 ‘리더스 클럽’(Leaders Club), 4학년·미취업졸업생 중견기업 취업준비반 ‘프론티어즈’(Frontiers) 등 학생 개인의 학년과 역량에 맞는 맞춤형 취업동아리를 운영하고, 취업 캠프·직종별 교육과정·맞춤형 상담 등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던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자오치정 전 中 정협 외사위 주임에 명예철학박사 학위

공공외교 통해 아시아 및 세계 평화·번영에 기여한 점 높이 평가



우리 대학은 지난 7월 18일 부민캠퍼스 국제관 다우홀에서 자오치정(趙啓正) 전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주임에게 명예철학박사 학위

를 수여했다.

자오치정 주임이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공외교를 통해 아시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940년 중국 베이징에서 태어난 자오치정 주임은 중국과학기술대학에서 핵물리학을 전공했으며, 졸업 후 20여 년간 국무원 기계공업부 핵관련 부서 기술자로서 과학연구 및 설계업무 등의 분야에서 많은 발명 특허를 남겼다.

1984년부터 상하이시의 시위원회 조직부장, 부시장, 푸둥(浦東)구 관리위원회 초대 주임 등을 역임하며, 중국경제개방의 상징인 푸둥 개발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푸둥 개발은 중국 경제 개방의 신호탄으로, 개발이 시작된 20년간 이 지역의 GDP가 70배 증가했고 금융, 첨단산업, 서비스의 중심으로 선진 경제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

또한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중국의 문화·국정·정책 등을 세계에 알리는 기구인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임을 역임하고,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제16차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됐다. 2005년부터 2013년 3월까지의 당의 정책 결정에 앞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중국의 최고 정책 자문회의인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상무위원 겸 외사위원회 주임을 역임했으며, 2009년 3월부터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1회 2, 3, 4, 5차 회의의 신문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권오창 총장은 치사를 통해 “자랑스러운 동아 가족이 되신 자오치정 박사님께서는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모든 인류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또 모교가 된 동아대 발전에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동제, ‘술 없는 축제’로 건강한 대학문화 조성

술 빠진 자리, 풍성한 문화행사로 채워져
지역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유쾌한 축제문화를 전통으로 만들 것



최근 대학가의 음주 문화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개선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대학은 ‘음주 없는 대동제 행사’를 치러 화제가 되었다.

지난 9월 23일부터 일주일간 ‘제46대 HJT 총학생회’가 주관한 가운데 열린 대동제는 ‘술 문화 없는 건강한 대학문화 조성’을 슬로건으로 건강한 대학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캠퍼스 내 음주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지역민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축제 기획 과정에 대동제 기간 술이 선후배간의 가교 역할을 한다는 이유를 들어 학내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총학생회는 발로 뛰는 설득작업을 통해 지난 8월 초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의에서 ‘술 없는 축제’를 통과시켰다.

술이 빠진 축제에는 다양한 이벤트와 문화행사가 자리했다. 승학캠퍼스와 부민캠퍼스 일대에서는 ‘러브 액츄얼리’ 연극 공연과 개그쇼 ‘허둥구단의 바라바라’, 한자특강 등 문화행사와 자취생 요리대회, E-스포츠 경기, 푸드파이터 대결, 대형 젠가 등의 소소한 이벤트가 열렸다. 25일부터는 예술대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공예품을 판매해 수익금을 기부하기 위한 ‘프리마켓’ 행사를 열었고, 석당인재학부도 24일부터 이를 동안 발전기금 마련 바자회를 마련하는 등 기부 이벤트도 열렸다. 특히 정치외교학과는 무료로 편지와 장미꽃을 나눠주고 접수받은 마음의 편지를 수신자에게 찾아가 대독하는 ‘마음전달 대행서비스’ 이벤트를 벌였는데, 큰 인기 속에 교수, 친구, 연인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감사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권성길 총학생회장은 “학생회 간부의 지도하에 교내 술 판매 금지와 음주 금지 등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며, “첫 해라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앞으로 술 없는 축제가 전통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우링크시스템, 수험생 진로 결정에 큰 도움

3~8월 약 500건 상담...입학사정관제 튜터팀 등 활약



우리 대학 입학사정관실에서 운영 중인 다우링크시스템(DAU Link System)이 수험생 진로 결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다우링크시스템은 전국의 고등학생 중 우리 대학 입학에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과의 교수 혹은 선배와 전공 및 진로에 대해 상담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약 500명의 학생이 입학사정관실의 다우링크시스템을 이용,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희망학과의 비전을 상담 받았다.

이밖에도 우리 대학은 ‘입학사정관제 튜터팀’과 ‘다우림 재학생 멘토단’, ‘2013 다우림 입학사정관제 전공체험 프로그램’ 등 입체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이용, 수험생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정확한 정보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총 28명으로 구성된 입학사정관제 튜터팀은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주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대학생활의 길라잡이 역할을 비롯, 수험생들을 위한 입학사정관제 및 전공 알리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다우림 재학생 멘토단은 총 61명으로 구성돼 직접 교교를 방문, 본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준비 노하우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1:1 맞춤형 전공 및 입학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한 전공체험프로그램은 대학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학과정보와 전공체험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3 다우림 입학사정관제 전공체험 프로그램은 1천 700여 명을 대상으로 25개 학과에서 50회 상시 운영한다. 지난 8월까지 총 23개 학과에서 35회 실시, 1천 25명이 참가해 그 인기를 실감케 했다.

한편, 우리 대학은 교육부의 ‘2013 대학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지원사업’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부울경 지역 대학 중 유일하게 ‘협력중심대학’으로 선발됐다. 2009년에 처음으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고 2010년 입학사정관제 우수대학을 시작으로 탁월한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4년 연속으로 입학사정관제 지원 대학에 선정된 바 있다.

우리 대학, 입학사정관 지원사업 ‘협력중심 대학’ 선정

전체 66개 대학 가운데 평가결과 ‘1위’
고교-대학 연계프로그램, 추수관리 등에서 높은 평가



우리 대학이 교과부의 ‘2013년 대학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지원사업’에서 부·울·경지역 대학 중 유일하게 ‘협력중심 대학’에 선정됐다.

협력중심 대학은 입학사정관 지원사업 선정 대학 가운데 평가결과가 우수한 9개교로, 입학사정관전형의 우수 사례를 확산하고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들 대학에는 약 1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은 일반대학 58개교, 교원양성대학 8개교 등 신규 대학 5개를 포함해 총 66개 대학으로, 총 395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교과부와 대교협은 이 같은 결과가 담긴 ‘2013년 대학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6월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교수·입학사정관·교사 등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그동안의 추진 실적과 2013년 운영계획을 중심으로 서면 및 면접 평가를 진행했다.

우리 대학은 이번 평가결과, 연차평가 및 선정평가 모두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교의 진로진학지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전공체험프로그램’, ‘다우림 모의전형프로그램’, 최근 2년간의 입시결과를 분석해 제공하는 ‘학교별 맞춤 컨설팅’ 등 고교-대학 연계프로그램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입학사정관전형을 통해 합격한 예비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점인정프로그램 ‘새내기 레벨업’을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등 추수 관리와 입학사정관 전문성 확보 면에서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2009년에 처음으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 우리 대학은 2010년 입학사정관제 우수대학에 선정됐으며, 탁월한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2011년부터 2년 연속으로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에 선정된 바 있다.

본교 출신 강남영 박사, 당뇨병 연구 새 장 열어

화학분야 최고 수준 학술지『안게반테케미』에 게재
건강하지 않은 랑게르한스섬 구별하는 베타세포
형광프로브 최초 개발



우리 대학 생명공학과 출신 강남영박사가 당뇨병 연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베타세포 형광프로브를 최초로 개발했다.

1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랑게르한스섬의 베타세포가 파괴돼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질환인데, 이번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브를 이용함으로써 정상 췌장의 랑게르한스섬과 건강하지 않은 랑게르한스섬을 구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 프로브를 이용해 건강한 랑게르한스섬의 염색 후 분리가 가능해져, 향후 랑게르한스섬 이식 수술에도 이용될 뿐 아니라 이식 후 모니터링도 가능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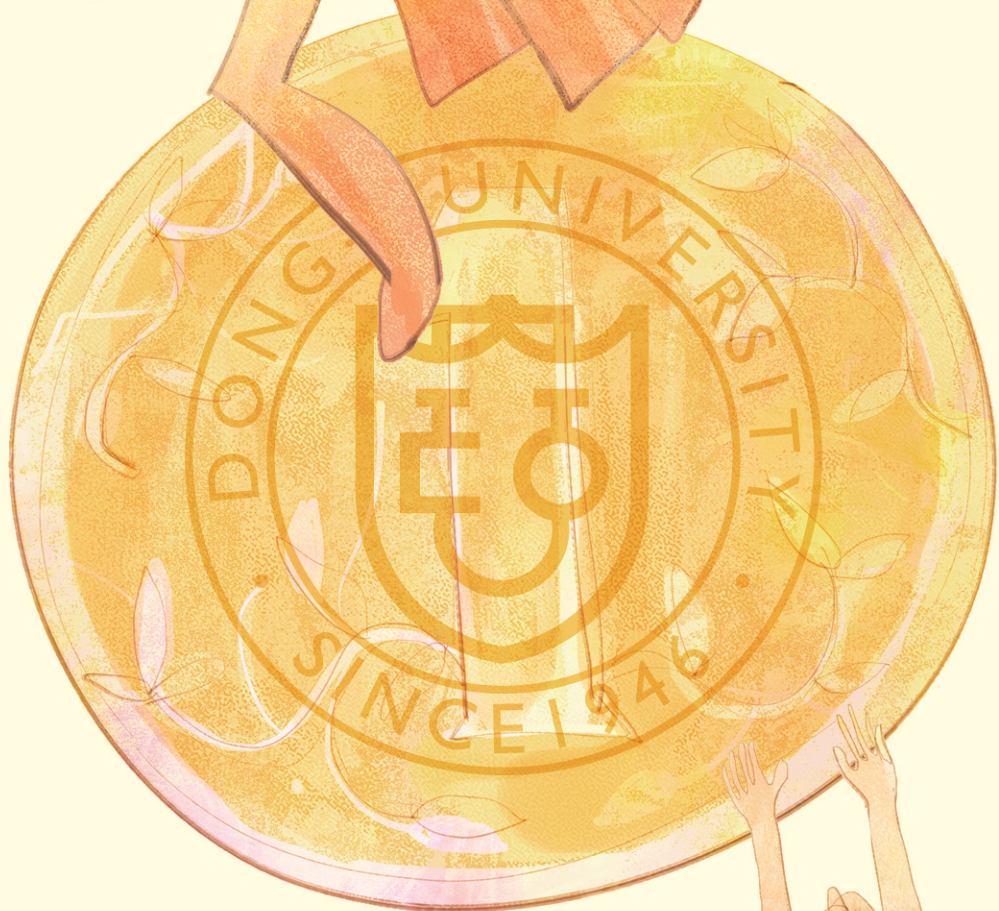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논문 제목은 ‘형광 프로브를 이용한 랑게르한스섬의 시각화와 분리’(Visualization and Isolation of Langerhans Islets by a Fluorescent Probe PIY)다.

이 논문은 종합 화학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지인『안게반테케미』(Angewandte Chemie-International Edition, 논문 인용 지수: 13.455)에 최근 게재됐다. 강 박사는 2010년에 이어 이 학술지에 두 번째 게재한 것이며,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가 선정하는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 난에도 소개됐다.

한편 강남영 박사는 본교 생명공학과에서 학부와 석사 및 박사과정(지도교수 이영춘)을 마쳤으며, 싱가포르국립대학에서 박사 후 연구원을 거쳐 현재 싱가포르 바이오 이미징 컨소시엄(Singapore Bioimaging Consortium)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연구하고 있다.

동아인을 위한 기부스토리

나눔이란
넉넉함 속에서의 나눔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눌 때
그 가치가 더욱 더 빛난다.
우리 대학의 발전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희망의 씨앗을 뿌린
이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자.



조무제 전 대법관, 모교 동아대에 남모른 선행

월급서 매달 50만 원씩 기부...총 기부금액 8,110만 원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재직, 후학 양성 힘써



조무제(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사
진) 전 대법관이 모교인 동아대에 남모르게 발전기금을
전달해 온 사실이 알려져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34년간 법조인 생활을 마친 후 퇴임한 조 전 대법관
은 거액의 보수가 보장되는 변호사 개업과 로펌의 영
입 제의를 마다하고, 자신이 졸업한 모교로 돌아가 강
단에 섰다. 동아대 법학과 61학번인 그는 동아대 법학
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용돼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조 전 대법관이 지금까지 남모르게 동아대에 기부
해 온 금액은 총 8천110만 원. 1993년 100만 원을 시작으로 꾸준히 발전기금을 전달, 지난 2월에는 500
만 원을 기부했다. 특히 그는 2009년부터 월급에서 50만 원씩 발전기금으로 꾸준히 기부하고 있다.

이러한 조 전 대법관의 선행이 빛을 발하는 것은 그의 청빈한 삶 때문이다. 조 전 대법관은 1993년
공직자 첫 재산공개 당시 25평 아파트 한 채와 부친 명의의 예금 등 6천434만 원을 신고해 고위법관 103
명 중 꼴찌를 차지했고, 1998년 대법관이 됐을 때도 7천200여만 원을 신고했다.

일선 법관 재직 시 당시만 해도 관행이었던 전별금을 받아 법원 도서관 등에 희사한 일화는 유
명하다. 대법관 시절에도 서울 서초동의 보증금 2천만 원짜리 원룸에서 생활하며 장관급 예우를
받는 대법관에게 배속되는 5급 비서관도 두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청빈한 생활을
고집해 왔다.

최근 새 정부 장관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사회 전반에 퍼진 법조인 출신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전관예우가 뜨거운 쟁점이 되는 요즘, 조 전 대법관의 남모른
선행이 귀감이 되고 있다. 조 전 대법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내
내 총리후보에 거명이 되기도 했다.

권오창 동아대 총장은 “2013학년도 동아대 등록금을 인하해 학
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어서 조 전 대법관님께서
내주신 기금을 학교발전 및 장학금 조성 등에 더욱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법고시 4회 출신의 조 대법관은 1970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1998년 8월 임기 6
년의 대법관에 취임해 2004년 퇴임했다.

발전기금 총
8,100만 원

22일 총장실 방문,
매년 2천만 원씩 5년간 전달

동아대학교 골프최고경영자과정(CEO) 동
문회는 지난 8월 22일 오후 4시 동아대 승학캠
퍼스 총장실을 방문해 발전기금 1억 원을 약정
했다.

정춘국 동문회장을 비롯해 안상명·이진행
고문, 홍종희 재무국장장과 이학춘(국제학부 교
수) 골프CEO 책임교수가 함께 자리했다. 이날
골프CEO 동문회는 동아대에 발전기금 1억 원
을 약정하고, 올해부터 발전기금 2천만 원씩
을 5년간 전달하기로 했다.

정춘국 동문회장은 “모교의 발전이 곧 우
리 골프CEO 동문회의 발전이라 생각하고 이
렇게 동문들이 뜻을 모았다”며 “동아 골프
CEO가 명실상부 우리나라의 최고 명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오창 총장은
“동문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우리 대학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2005년 설립 이
래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동아대 골프CEO의 지
속적인 성장과 동문회의 무궁한 발전을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동아대 골프CEO는 지난 2005년 지역
대학 최초로 설립된 이래 600명 이상을 배출했다.

동아대 골프 CEO 동문회, 발전기금 1억 원 약정



동아대학교 골프최고경영자과정(CEO) 동문회는 지난 8월 22일 오후 4시 동아대 승학캠퍼스 총장실을 방문, 발전기금 1억 원을 약정한 뒤 정춘국(왼쪽) 회장과 권오창 총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발전기금
10,000만 원

발전기금
5,000만 원

석 지부장 “대학 구성원 모두가
대학 발전 위해 뭉치는 계기 되길”
조합원 · 비조합원 · 학교법인 직원까지
모두 참여...급여 일부 기부

전국대학노동조합 동아대학교지부(지부장 석용주)는 지난 2월 26일 오전 우리 대학교 승학캠퍼스 총장실에서 발전기금 4200만 원을 권오창 총장에게 전달했다.

노조 측은 “지난해부터 대학을 둘러싼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대학 구성원으로서 대학 발전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그 방안의 하나로 대학 발전기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 노조는 최근 임시총회를 통해 급여의 일부를 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안을 가결했다. 발전기금 기부에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 학교법인 동아학숙 직원까지 모두 참여했다. 특히 오는 28일 퇴직을 앞둔 직원 6명도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석용주 지부장은 “과거에는 노조가 조합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집단으로 비춰졌지만, 직원 또한 대학을 대표한다는 사명의식을 갖고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발전기금 전달이 초석이 돼 직원들 모두가 대학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뭉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오창 총장은 “2013학년도 등록금을 인하여 학교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조원과 비조합원, 동아학숙 직원들까지 월급을 쪼개 발전기금으로 내줘 감사하다”며 “부민캠퍼스 인근에 동아대서 공부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회관을 건립할 계획인데 이 기부금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대학 노조는 2007년 12월에도 조합원들이 출장비를 절약한 돈과 조합원들이 매달 내는 조합비 등을 모아 학교 측에 발전기금으로 2000만 원을 기탁한 바 있다.

임준택 대진수산 회장, 동아대에 발전기금 5천만 원 기부

2008년부터 총 1억7천만 원 남모르게 발전기금 전달해와 임 회장 “이를 통해 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 높아지길”



임준택(가운데) 대진수산(주) 회장이 지난 4월 29일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총장실에서 권오창(왼쪽에서 두 번째) 총장에게 발전기금 5천만 원을 쾌척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준택 대진수산(주) 회장이 지난 4월 29일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총장실에서 발전기금 5천만 원을 쾌척했다.

임 회장의 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고경영자과정(AMP) 40기를 수료하며 동아대와 인연을 맺은 임 회장은 2008년 9월에 2천만 원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억 7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동아대에 전달해 왔다. 그런데도 임 회장은 자신의 기부 소식이 외부로 알려지기를 꺼려왔다.

임준택 회장은 “세상에 남모르게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일로 외부에 알려지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았다”며 “부족하나마 이를 통해 대학 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권오창 총장, 황규홍 전 대외협력처장, 송한식 국제교류원장, 황기식 비서실장 등이 함께 자리해 임 회장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권오창 총장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임준택 회장의 선행에 우리 동아인 모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기부해 주신 발전기금을 통해, 뛰어난 역량과 바른 인성을 고루 갖춘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발전기금
4,200만 원



전국대학노동조합 동아대지부는 지난 2월 26일 대학 발전기금 4200만 원을 대학에 전달한 뒤 권오창(가운데 오른쪽) 총장과 석용주(가운데 왼쪽) 지부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발전기금
5,000만 원

김영식 천호식품 회장, 동아대에 발전기금 5천만 원 쾌척



지난 5월 21일 열린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AMP) 동문회 2013년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에서 김영식(오른쪽) 천호식품 회장이 권오창 동아대 총장에게 발전기금을 전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영식 천호식품 회장이 지난 5월 21일 동아대학교(총장 권오창)에 발전기금을 5천만 원을 쾌척했다.

김 회장은 21일 오후 6시부터 롯데호텔 3층 아트홀에서 진행된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AMP) 동문회 2013년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에서 권오창 총장에게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그는 “선·후배들이 함께 모인 뜻깊은 자리에서, 모교 발전과 후배들을 위한 발전기금을 전달하게 돼 영광”이라며 “모교의 앞날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오창 총장은 “회장님의 끝없는 도전정신과 열정, 그리고 이웃사랑과 사회공헌은 우리 후배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며 “모교를 향한 회장님의 애정과 관심에 다시금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에서는 AMP 동문회의 지난 1년을 돌아보는 한편, 김두남 제39대 회장이 이임하고 김중배 제40대 회장이 취임했다. 권오창 총장을 비롯해 김상범 동아대병원장, 제종모 동아대 총동문회장, 류진수 동아대 경영대학원 회장단협의회장 등 300여 명의 동아대 관계자 및 동문들이 참석했다.

한편, 김 회장은 동아대 최고경영자과정 27기를 수료했으며, 2012년 11월에는 동아대에서 명예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3월에는 역동적인 경영철학과 사회공헌활동 등의 공로를 인정, 동아대 생명자원과학대학 유전공학과 겸임교수로 임용되기도 했다.

석당인재학부 학부모 자치회, 동아대에 발전기금 약정서 전달



동아대학교 석당인재학부 학부모 자치회가 지난 10월 15일 오후 4시 부민캠퍼스 총장실을 방문해 발전기금 약정서를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발전기금
18,000만 원

향후 10년간 약 1억8천만 원 약정...
교육환경개선과 후학양성 목적
서정운 회장 “내년 첫 졸업생 배출,
동아대 동문으로서 큰 역할 할 것”

동아대학교 석당인재학부 학부모 자치회(회장 서정운)가 지난 10월 15일 오후 4시 부민캠퍼스 총장실을 방문,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과 후학양성의 목적으로 발전기금 약정서를 전달했다.

이날 발전기금 약정서 전달식에서는 동아대 권오창 총장과 이동규 석당인재학부장 등이 자리한 가운데, 동아대 석당인재학부 학부모 자치회 서정운 회장이 대표로 참석해 향후 10년간 약 1억 8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서 회장은 “석당인재학부가 내년에 첫 졸업생을 배출하게 된다. 이를 축하하고자 학부모들이 함께 발전기금을 모으게 됐다”며,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동아대 동문으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에 권 총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석당인재학부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인재 양성의 집합소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석당인재학부 학생회는 지난 4월 부민캠퍼스 국제관에서 바자회를 열고, 여기서 얻은 수익금 112만3천 원을 발전기금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2013학년도 장학금 수여식



2013학년도 제1학기 (재)사하양지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일시 : 2013. 03. 07
장소 : 승학캠퍼스 본부 2층 본부회의실



2013학년도 제2학기 (재)동아대학교 동문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일시 : 2013. 08. 08
장소 : 부민캠퍼스 석당박물관 1층 세미나실



제6회 (재)동아대학원·(재)동아박사회 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

일시 : 2013. 08. 29
장소 : 승학캠퍼스 본부 3층 중회의실



제5회 (재)정운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

일시 : 2013. 01. 31
장소 : 승학캠퍼스 본부 3층 본회의실



2013학년도 제1학기 동아대학교 여교수회 장학금 수여식

일시 : 2013. 04. 12
장소 : 부민캠퍼스 석당박물관 1층 세미나실



2013학년도 (재)서봉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

일시 : 2013. 08. 12
장소 : 부민캠퍼스 석당박물관 1층 세미나실



2013학년도 (재)동아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일시 : 2013. 09. 04
장소 : 승학캠퍼스 본부 2층 본부회의실



제4회 (재)봉당 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

일시 : 2013. 01. 29
장소 : 승학캠퍼스 본부 2층 본부회의실



2013학년도 제1학기 건축학과 장학금 수여식

일시 : 2013. 04. 16
장소 : 승학캠퍼스 산학협력관 815호



2013학년도 (재)한원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

일시 : 2013. 08. 12
장소 : 부민캠퍼스 석당박물관 1층 세미나실



2013학년도 제2학기 (재)사하양지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일시 : 2013. 09. 05
장소 : 승학캠퍼스 본부 2층 본부회의실



2013학년도 제1학기 동아대학교 동문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일시 : 2013. 02. 15
장소 : 부민캠퍼스 석당박물관 1층 세미나실



2013학년도 육경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일시 : 2013. 06. 28
장소 : 승학캠퍼스 인문대 7층 세미나실



2013학년도 동아공학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

일시 : 2013. 08. 21
장소 : 승학캠퍼스 공과대학 세미나실



2013학년도 (재)동아대학교 재직동문회 장학금 수여식

일시 : 2013. 08. 29
장소 : 승학캠퍼스 본부 2층 본부회의실

후원의 집 안내



•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이란?

동아대학교의 발전과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의 발전기금을 후원해주는 모범업소를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으로 선정합니다.

• 가입대상

동아대학교를 사랑하고 발전을 지원하는 모든 업소 및 사업체

• 가입방법

-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아대학교 대외협력과에 우편 또는 FAX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주위에 후원의 집을 희망하는 업체를 동아대학교 대외협력과로 추천해주시면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 가입시 혜택

-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 명판 부착
- 후원금에 대하여 세금감면용 기부 영수증 발급
- 동아대학교 총장 명의 감사 난 발송
- 교내외 각종 행사 안내 및 초대권 발송
- 명절 때 쌀 · 감 등 소정의 기념품 발송
- 매년 동아대학교 달력 및 수첩 발송
- 본교에서 발행하는 각종 소식지 및 동아대학보에 지속적으로 소개
- 본교 발전기금 홈페이지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에 등재 관리
- 교직원, 학생, 동문 및 교내 행사 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후원의 집에서 실시하는 각종 이벤트를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 및 전 교직원 메일 발송
- 특별한 행사 등 기사거리가 있을 경우 언론매체에 보도자료 배포

• 가입문의

Tel : (051)200-6012~3, 010-5576-2380

(담당자 : 진윤홍)

Fax : (051)200-6015

E-mail : jinyh@dau.ac.kr

Homepage : http://fund.donga.ac.kr

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동아대학교 대외협력과



112호점 맛도 분위기도 고급을 추구하는 마당집

마당집은 서면 롯데호텔 옆에 위치한 숯불구이전문점입니다. 순수 국내산 한우만을 취급하며, 직접 담근 양념, 된장, 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점심특선으로는 돌솥한정식과 돌솥비빔밥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연화석이 완비되어 있어 귀빈에게 식사를 대접하기에 적합한 장소입니다.

주 소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2동 512-23
연락처 051-806-8602
영업시간 10:00 ~ 22:00 (연중무휴)



115호점 대나무 숲속 아름다운 야경과 함께 일식코스 요리! 청죽(靑竹)

청죽은 품격 있는 일식 코스요리의 정당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입구부터 도심 속의 자연 경관을 만끽할 수 있으며, 특히 저녁에는 더욱 화려한 경관을 자랑합니다. 조용한 분위기에 깔끔한 음식이 더해져 상경레나 귀빈 접대 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 소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3가 511-10
연락처 051-247-8555
영업시간 11:30 ~ 22:00 (연중무휴, 명절제외)



117호점 대장치료, 아프지 않게 치료해 드립니다! 항플라스병원

항플라스병원은 대장항문세부전문에 의해 철저한 진단 및 수술을 받을 수 있으며 위 대장 내시경을 비롯해 치질, 맹장, 소화불량, 변비 등 전반적인 대장항문질환에 포괄적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입니다. 특히 동아대학교 교직원 학생 가족 및 후원의 집업체에 대해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특별 할인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주 소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592-2
연락처 051-207-6111
외과 진료시간 월~목 9:00~18:00 / 금 9:00~20:00
토 9:00~15:00 / 일요일, 공휴일 휴진
점심시간 13:00~14:00
내과 진료시간 평일 9:00~18:00 / 토요일 9:00~13:00
일요일, 공휴일 휴진 / 점심시간 13:00~14:00



113호점 자동차에 관한 것,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카플라스

카플라스는 부민캠퍼스 인근에 위치한 자동차 정비 전문점입니다.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교환, 펌프 수리 등 자동차 정비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대학교 학생, 교직원분들께는 더욱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에 관한 모든 것을 카플라스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 부산시 서구 보수대로 117 (41-3)
연락처 051-248-5890
영업시간 08:30~20:00 (일요일 상시 영업)



116호점 영어박사가 되는 비결? 어렵지 않아요~! 올복스

올복스는 다양한 국내외 영어서적을 판매하는 국내 최초의 영어전문서점입니다. 영어 교과서, 학원 교재 등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었던 다양한 영어 관련 서적을 올복스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소홀히 했던 영어 공부, 올복스에서 쉽고 재미있는 영어를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주 소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7-4 영남빌딩 10층
연락처 051-744-5105
평일 | 10:00~19:00
영업시간 토요일 | 10:00~18:00 (일요일, 공휴일 휴무)

•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 가입에 감사드립니다.

호점	상호명	호점	상호명
100호점	가락정갈국수	116호점	올복스
101호점	부산양곱창	117호점	항플라스병원
102호점	예향	118호점	송월타울
103호점	타이어천국	119호점	블랙야크 하단점
104호점	대훈기획	120호점	삼승초밥
106호점	우주문화사	121호점	아이시티안과
107호점	다빈향	122호점	덕성원
109호점	해월정갈비	123호점	러쉬
110호점	밝은노안과	124호점	동래삼계탕 하단점
111호점	양지화원	125호점	강산모아치과
112호점	마당집	126호점	에피소드인커피
113호점	카플라스	127호점	베리앤버리
114호점	우리집으로	128호점	JMFit
115호점	청죽	129호점	선미집

Energetic of Dong-A

Donation List

후원의집

발전기금

(주)신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자연치아병원
주식인도

동아대학교가 대한민국 최고 명문사학으로 비상하기 위한
힘찬 날갯짓에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발전기금 용도

장학사업 : 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줍니다.

교육 및 연구시설의 확충 : 교육 및 연구여건을 개선하여 동아대학교가 세계 속의 대학으로 웅비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기숙사 확충 : 타 지역 출신 및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의 면학환경 개선을 위해 부족한 기숙사실을 확충할 것입니다.

기타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등 : 실험실습기자재를 확충하고 국내외 문헌 및 학술자료들을 확보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 국가와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할 것입니다.

참여대상

동문, 교직원, 학부모, 재학생, 독지가, 기업체, 기관, 단체 등 동아를 사랑하는 어느 누구라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방법

기부내용 : 현금, 유가증권뿐만 아니라 부동산, 실험실습기자재 등 여러분의 정성이 담긴 어떠한 물품이라도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현금으로 기부하실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 무통장 입금 | 계좌로 직접 입금하시고 입금내역을 전화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예금주 : 동아대학교발전기금

－ 부산은행 : 029-01-027228-1 － 농협중앙회 : 944-17-004326

－ 국민은행 : 118201-04-168318 － 우체국 : 600783-01-008731

CMS(Cash Management Service)는 동아대학교가 금융결제원에 자동이체 출금을 의뢰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송금수수료가 없습니다.

• 방문납부 | 우리 대학교 대외협력처 대외협력과 대외협력팀(본부건물 3층 314호)으로 내방하시어 직접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 급여공제 | 교직원에 한하여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약정신청

전화·방문 약정

전화를 주시거나 방문해 주시면 발전기금 약정과 납부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 대외협력과 대외협력팀 TEL : 051) 200-6060, 6012~3

온라인 약정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fund.donga.ac.kr>)를 통해 편리하게 약정하실 수 있으며, 담당자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팩스나 우편으로 약정

다운로드 받은 약정서를 기입하셔서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보내주시면 담당자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FAX : 051) 200-6015

• 주소 : (우)604-714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하단동) 동아대학교
대외협력처 대외협력과 대외협력팀(대학본부 3층 314호)

“
당신의 사랑이 있기에
동아의 미래는 더 빛납니다.
”

보내는이

□□□-□□□

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3. 1. 1 ~ 2013. 12. 31
부산사하우체국
제97호

604-714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동아대학교 대외협력처 대외협력과 대외협력팀(본부 314호)

풀 칠 하 는 곳

동아대학교 발전기금 약정서

*표시된 항목은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약 정 인	* 성 명(기관명)				* 주민(사업)등록번호			
	* 연락처(휴대폰)				E-mail			
	관 계		☐ 동 문 ☐ 학부모 ☐ 재학생 ☐ 일반		■ 성명 :		■ 소속 :	
	주소	자택						
직장								
기부권유자		■ 성명 :		■ 소속 :				

※ 기입하신 개인정보는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과 각종 예우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합니다.
※ 선택 항목은 기입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나, 본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예우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기부총액		일금		원정		☐ 현금 ☐ 기타()	
출 연 방 법	일시납부 ☐	금 액	일금		원정		☐ 현금 ☐ 기타()
		■ 예금주 : 동아대학교(발전기금)				☐ 부산은행 : 029-01-027228-1 ☐ 국민은행 : 118201-04-168318 ☐ 농 협 : 944-17-004326 ☐ 우 체 국 : 600783-01-008731	
	분할납부 (CMS) ☐	금 액	일금		원정		☐ 현금 ☐ 기타()
		20 년 월 ~ 20 년 월 까지		회 분할납부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출 금 일 : ☐ 10일 ☐ 25일					
기부목적		CMS(Cash Management Service)는 동아대학교가 금융결제원에 자동이체 출금을 의뢰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송금수수료가 없습니다.					
		☐ 학교에 위임 ☐ 목적기금 ()					

위와 같이 기부함을 약정합니다.

20 년 월 일
약정인 (인)

기금문의 | 동아대학교 대외협력처 대외협력과 051)200-6060, 200-6012~3 <http://fund.donga.ac.kr>

동아대학교 발전기금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동아대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발전기금 기부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발전기금 기부와 관련하여 원활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 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동아대학교 발전기금 약정서에 기입되는 모든 개인정보는 기부금 영수증 발행, 기부자 예우의 용도 등에 한하여 쓰이며, 이 외의 용도에 쓰일 경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 성명(기관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선택항목 : E-mail, 주소(자택/직장), 기부권유자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기부 약정 종료일까지 본교에서 보유하며, 본교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다만 기부자가 약정 해지를 요청하거나 자료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시, 해당 개인정보는 재생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해 완전히 삭제되며, 어떠한 용도로도 열람 또는 이용 할 수 없도록 처리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발전기금 기부 희망자는 개인정보(선택 항목)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본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기부자 예우 등)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본교가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동아대학교는 발전기금 기부자의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별도로 두고, 더욱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발전기금 서비스를 위한 본인 확인,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 발급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주민(사업자)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기부 약정 종료일까지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발전기금 기부 희망자는 본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발전기금 기부 및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 본교가 상기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상기 내용과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약정인 (인)

우리는
동아인이다

동아인은 동아대학교의 새로운 비전으로

세계를 대표하는 세대로 거듭날 것이다.

우리는 미래를 바꿀 새로운 인재,

동아인이다.

동
아
대
학
교



동아대학교 2014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원서접수 안내

- ▶ 정시 '가', '나', '다'군 공통 원서접수 : 2013.12.20.(금) 09:00 ~ 12.24.(화) 18:00
- ▶ 홈페이지 : <http://ent.donga.ac.kr>